

윤석열 대통령, 파리 개최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참석

K-Culture, K-Food 등 한국 문화의 다채로운 매력 선보일 예정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프랑스 파리 방문 둘째 날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오늘(현지시간 11. 24, 금) 저녁 프랑스 파리의 브롱나르그(宮)에서 개최된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했다.

대통령의 방문은 올해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지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으로서, 정상이 1년에 한국을 두 번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번 국경일 리셉션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주제이기도 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Transfö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를 테마로 준비됐으며, 프랑스 측의 주요 인사들과 재외 동포, 각국의 대사 및 BIE 회원국 대표를 포함한 파리 주재 외교단 등 총 6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대통령 부부는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하여 우리 동포 등과 함께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축사를 통해 "단군이 2,333년 한반도에 처음 나라를 세운 이래 일제 강점, 6·25전쟁을 포함한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면서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



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는 우리의 강한 의지, 비전을 역설했다.

한편, 대통령 부부는 11월 28일 BIE 총회 계기 있을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를 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을 실시했다. SK, 삼성,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한 재

계 주요 인사들 또한 리셉션에 총출동하여 '코리아 원팀'으로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총력 지지 교섭에 함께 나섰다.

나아가 이번 국경일 리셉션에서는 동북아 물류거점이자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부산이 가진 차별화된 강점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식과 음악, 전통문화 등 한국의 매력을 소개하여 투표 직전 BIE 대표들에게 최적의 박람회 개최지로서 한국의 부산을 각인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급급의 전격적인 유치 교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최광수/기자

김동연 지사, "중증장애인이 만든 물건의 소비야말로 가치 소비의 예(例)"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경기도청사에서 진행된 '경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에 참석해 생산품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세 기관이 힘을 합쳐 마련했다.

김동연 지사는 "사회적으로 가치를 만드는 제품, 용역, 서비스 등을 구입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가치 소비를 하는 법"이라며 "중증장애인이 만든 물건의 소비야말로 가치 소비의 예(例)"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경기도에서는 기회소득이라고 한다. 장애인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확인을 해봤더니 경기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1%에 미달하는데 내년에는 꼭 1%를 달성하겠다"면서 "더 나아가서 생산품 다양화나 품질 고도화 등 여러 가치를 도와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총 46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참여해 사무용품, 생활용품, 식품 등 80여 종의 제품을 전시·판매한다. 또한 장애인 예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누림 아트웍워크(Art&Work)' 장애인 예술품 전시도 함께 진행된다.

김병상/기자

서울시복지재단,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발간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 가정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보호시설 아동·청소년의 후견인 심판 선임청구를 진행해왔으며, 그동안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 전면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의 복지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등을 위해 서울사회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근무하며, 매년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법률 실무 도우미를 발간하고 있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많은 아동·청소년들은 친권자(부모)가 있지만 친권자가 보호 및 양육 책임을 다하지 못해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부재한 경우가 많다. 이에 법률은 친권자를 대신하는 미성년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고, 미성년자 보호·양육 시설에서는 필요 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정원은 16,089명(서울시 3,048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후견인 선임 절차를 잘 몰라 보호시설 미성년자들이 통장개설, 의료결정, 여권발급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본 매뉴얼은 이러한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매뉴얼은 112쪽 분량 150mm x 205mm 크기의 소책자이며, 보호시설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되는 자격 및 절차와 친권자에 대한 친권 제한·상실 청구가 주요 내용으로 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센터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관한 활용례가 많지 않고, 규정상 허점이 있거나 실무상 활용 방법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등의 이유로 매뉴얼 마련이 쉽지 않았으나, 2017년 최초 발간 이후 사례를 축적하여 올해 전면개정판을 발간했다.

전면개정 작업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해 현장의 욕구를 파악했으며, 변호사와 보호시설 실무자가 집필 및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또한 센터가 실제로 후견인 지정허가 심판사건을 진행하며 고민했던 현 제도의 보완점도 담았다.

보호시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법과 별개로 '시설미성년후견법'이 존재하나, 친권과 후견인 권한의 관계 정립 및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절차 개선 등 보완할 점들이 있다.

센터는 미성년자 후견인지정허가 심판 선임청구 등 무료법률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며 23일, 29일 양일에 걸쳐 미성년 후견인 선임 관련하여 현장 실무자 대상 교육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기후변화 극복 고품질 복숭아 생산 세미나 개최

청도복숭아연구소, 복숭아 산업 발전 협력 체계 구축 및 정보 제공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청도복숭아연구소는 지난 24일 청도국민체육센터에서 '기후변화 극복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한 주요 병해충 방제 및 전정기술'이라는 주제로 '제25회 복숭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도복숭아연구소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복숭아수출농업기술지원단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매년 복숭아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배 기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이준성 복숭아연구회장 등 연구회 회원과 도의원, 농업기술센터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6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자원관리원 김승환 의성분원장의 '복숭아 주요 병해 방제 기술'과 농업과학기술원 송주하 센터장의 '작물보호제 유효



바른 사용법'강의가 실시됐다.

특히, 이날 강의는 올해 급격한 기온변화와 강우로 인해 많이 발생한 탄저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인들에게 유익

한 시간이 됐다.

또, 청도복숭아연구소 이지윤 박사가 경북도 육성 복숭아 신품종의 특성과 재배 방법을 설명해 품종 선택의 기회를 제

공했으며, 최재원 복숭아 마이스터 등 3명의 선도농가와 함께 '복숭아 동계 전정 기술'에 관한 현장실습도 진행했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올해 경북 지역 복숭아 농사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탄저병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해 힘든 한 해였다"며, "농업기술원은 효과적인 탄저병 방제 약제 선별과 실증 연구를 진행해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는 한편, 복숭아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영농상황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숭아연구회는 도내 복숭아 재배 농업인을 중심으로 청도, 김천, 영천 등 12개 지부 6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복숭아 세미나 및 품평회 개최, 병해충 예찰단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남원시 · 전북대학교

미래를 이끄는 전북대 100
Global TOP 100

전북대 글로벌대학30 선정

폐교 서남대가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로 다시 태어납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사업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여 과감하게 정리해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11월 22일과 23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사업효과와 필요성이 부족한 58개 사업에 64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상북도체육회가 1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22억원이나 되는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하는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천년숲정원의 관리부실을 지적하며, 규모에 맞는 비용을 계획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 아울러, 내년 관리운영비로 680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영화드라마 지역 로케이션 제작지원을 언급하며, 영화 '모래시계'의 배경이 된 정동진역이 관광유인 효과를 누린 만큼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지원과 관련하여 선정된 기념품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해마다 공모전을 하는 것보다 기존 선정된 작품에 대한 판로개척 등 활용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재선총병 피해가 확산되어 있는 만큼 예산을 불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 폐목제거에 더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도시침수대응 사업과 관련 침수 피해지역 전체에 대한 완전 준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힌남노 피해지역에 대한 사업 진행이 많이 늦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포항 호미곶 대보저수지 돌레길 조성사업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해맞이 광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추진된다고 지적하며, 사업 위치를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한복창작해커톤 대회와 관련 사이버창작이 한복 등 전통 복식과의 연계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그냥 디자인을 의뢰하거나 기존 디자인을 활용해도 충분하며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산림소득식물개발과 관련 성과물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특허개발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그로 인한 민간의 수익창출은 미비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지역의 상권이 대도시로 자꾸 빠져나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구 사람들을 경북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지역의 대표축제를 기획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플라 장학금은 역사적 스토리가 있는 장학금으로 장학사업이 오래 계속되려면 기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여 추진해야 사업추진 무산으로 인한 초기 용역비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사업을 경북문화재단이

나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지 말고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임도가 설치된 곳에 수해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안전진단 등을 통해 임도 설치로 인한 산사태가 유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연구실 의원(포항)은 재선총병 방제작업과 관련 감염부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감염목은 주민들의 의심을 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감리와 시공자에게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박물관 개장과 관련 키즈카페 등 편의시설도 좋지만 재개장을 하는 만큼 기본적인 것에 우선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임산식용버섯연구와 관련 연구원의 목적은 제대로 된 연구라고 지적하며, 결과물을 활용한 상품화와 마케팅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과 관련 사업내용이 겹치는 시군이 있다며 각 지역에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 예산이므로 시군의 사업계획에 대한 도의 조정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립예술단과 관련 서로 신고하고 신고당 하면서 조직이 운영될 수 없다고 질타하며, '도립'이라는 말에 걸맞게 도립예술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된 부적절한 사업들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업이라도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여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예천군의회, '예천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 채택

주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교육 받도록... '학습 사회' 만든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 26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천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평생학습도시'란 지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향상하고 함께 성장 발전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동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군민의 자아실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실현하고 학습 인프라 및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천군의회에서는 "100세 시대 고

령화 및 지방소멸 등 급속한 사회 여건 속에서 주민의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교육을 통해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학습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2024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결의문 채택으로 ▲평생교육 관련 조례 제정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평생교육 주민 조사 실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평생교육 전담부서 설치 ▲평생교육 사 배치 등 필요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

정금자/기자



아산시의회, 아산시 해맑은벼 생산자와 간담회 가져

해맑은벼 재배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 모색

아산시의회는 지난 24일 오후 3시 30분 의회동 다목적회의실에서 아산시 해맑은벼 생산자와 벼 재배상의 현안 및 고충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을 비롯한 명노봉 의원, 홍순철 의원, 김은복 의원과 둔포면·영인면 지역 해맑은벼 생산자 대표단 및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90여 분 동안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아산시 해맑은벼 생산자들은 주로 벼 재배상의 고충을 토로했고 아산맑은쌀 브랜드화를 위한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도열병 등 병해충 예방 대책 마련 ▲이양시기

및 적정 시비량에 대한 철저한 교육 ▲올바른 경작 매뉴얼 작성하여 적극 계도 ▲아산맑은쌀 원료곡 대체 위한 장려금 지원 ▲아산맑은쌀 브랜드 홍보 강화 필요성 등으로 경작에 있어서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희영 의장은 "아산맑은쌀 원료곡 대체 품종인 해맑은벼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된 자리에서 참석하여 생산적인 의견을 주신 영농인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이번에 논의된 문제점들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개선 과정을 통해 해맑은벼가 아산시의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배영숙 의원, 부산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폐교 활용 방안 제안



최근 인제대 부산백병원 인근 주원초등학교가 2025년 3월 1일부로 주변 학교로 통폐합이 확정되며 향후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지 지역사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끌고 있는 부산백병원의 확대를 위해 폐교 활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24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폐교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교육청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배영숙 의원은 먼저 "지난 307회 임시회 5분발언 중 부산백병원의 주차난 해소에 대한 협의체 구성 제안"을 언급하며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주원초등학교 통폐합"에 대한 향후 폐교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의 폐교가 늘어나는 가운데 부산시는

2023년 3월 기준 폐교가 48개교로, 광역시 중 인천 다음으로 폐교 수가 많다. 부산시 폐교 중 학교부지나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곳이 25개교, 매각 20개교, 대부 2개교, 검토 중인 곳이 1개교다.

이 중 학교 부지나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된 학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 대부분 매각되어 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연수원 건립 등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시설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배 의원은 "999년 8월 31일에 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는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 의원은 "떠오르는 뜨거운 감

자인 주원초등학교의 통폐합 결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부산백병원의 기능을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많은 주민들의 열망이 담겨진 결정체이다"라면서 "수도권으로 원정진료 등 환자 유출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수도권과의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배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은 폐교 활용에 있어 40년간 서부산권의 의료체계를 책임지는 부산백병원이 붕괴되지 않고, 기능 확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결정을 통해 지역발전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김희태/기자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 "문지마 범죄에 대비한 도시철도 안전장비 비치"

'문지마 범죄' 대비 도시철도 내 안전장비 구비·비치 근거 마련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도시철도 역사 내 안전장비 비치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전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올해 7월 서울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문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고, 특히 도시철도 역사는 '문지마 범죄'의 대표적 위험 지역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비를 도시철도 역무시설에 구비해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도시철도운영자는 흉기난동 등 위험으로부터 시민과 도시철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역무시설에 구비·비치하도록 했으며, 안전장비의 종류와 비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김정옥 의원은 "대구시는 도시철도와 관련된 가슴 아픈 사고가 많았다. 1995년 상인동 지하철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 2003년 지하철 화재 참사 모두 사람에게 의한 재난이었으며, 또 다른 인적 재난이 될 수도 있는 '문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라고 강조하며, "도시철도 역사 안의 안전장비는 긴급한 범죄 상황을 대비함은 물론, 대구시민들의 편안한 도시철도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영민 · 편집국장: 최재은 · 부회장: 임석경 · 청소년책임기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광고국: 1899.9659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힐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경기북부 과적 화물차량 단속인원 확충 요구

청년실업 해결 및 해운물류산업 진흥을 위한 해운물류업 취업 연계 사업 확충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철도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과 경기북부지역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인원 확충을 요구했다.

김동영 의원은 철도물류한국을 상대로 시·군 철도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하는 '철도분야 전문성 강화' 사업이 "도내 철도업무 담당자들의 실무능력, 전문성 강화와 동시에 철도항만물류국의 철도사업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철도분야 전문성 강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기철도 아카데미 교육은 시·군 철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론 및 현장 교육 등을 통해 철도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총 2천만 원의 예산으로 4회 진행된 이 사업은 2024년에



도 변동없이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

김 의원은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 사업과 고교생 진로체험 과정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통해 해운물류 산업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는 해운물류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경기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운물류

관련 실무 이론과 현장 교육, 취업역량 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연 2회, 총 인원 60명을 모집한다.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 사업에 대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평택항의 위상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유선으로 운영되는 평택항만 안내선을 격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진 건설본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김 의원은 경기북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경기북부 운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은 경기북부 23개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속인원은 공무원 9명, 일반직 공무원 2명으로 총 11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북부 지역의 개발과 물류창고 설치로 과적 화물차 운행이 잦아지고 있다"며 "과적 화물차는 심각한 도로파손과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과적 단속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단속 인원을 확충하라"고 주문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은 현재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월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경기도 청년 나이 기준이 39세로 상향됐고, 이로써 17개 광역 시·도의 청년 나이 기준이 모두 39세(전남 45세)로 통일됐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가 달라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 대한 혼선 및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 논란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10월 국회 정부위원회 국



정감사에서도 청년 나이 기준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2건 발의되어 1건은 입법예고 중, 1건은 국회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나이에 대한 법적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하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오는 12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악취 등 도내 생활환경개선, 도민 안전먹거리 위한 대응체계 마련 요구

박옥분 의원, 도내 공공하수처리장 악취 등 민원에 대한 도내 생활환경 개선 및 검사 강화 요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22일 열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 공공하수처리장 악취취취 소음 문제에 따른 도지사 답변과 이에 따른 경기도의 개선 사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장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주민의 생활권 침해되는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하지만 관계공무원(연구원)이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는 조례의 미이행과 복합악취 채취기준을 어기는 위법 측정도 의심되는 상황 등이 있었다"며 "경기도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의혹 등으로 도민의 불안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검사기준을 보다 더 강화하고, 항상 검사 준을 잘 지키고 검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을 잃지 않아야 한다. 특히, 매년 수백 건이 매년 발생하는 민원을 단 몇 건만 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연구원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연구원에서 위탁 및 대리로서 키지 않고 연구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채취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최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39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벌여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10건을 적발한 바 있었다.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먹거

리는 즉시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 중지 조치를 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해 즉시 폐기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가 수시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박옥분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3차 해양 방류로 7천800t 방류로 인해 농수산물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우려와 안전성 문제가 커진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우려가 큰 만큼, 방사성 물질 정밀검사를 확대하는 등 보건환경연구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작년과 올해의 문제가 아닌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문제이므로 이를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일제조사해 23억 원 징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전국 부동산 분양권 일제조사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법인 및 정리부류자 포함) 대상 조사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 2,403억 원 분양권 취득, 체납액 162배 규모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사실상 부동산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압류) 및 납부독려 등으로 23억 징수하고 16억 원의 체납된 지방세 채권 확보



경기도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일제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 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 원의 162배에 달한다.

도는 적발된 체납자들에게 분양권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예고 등을 실시해 365명으로부터 23억 원을 징수하고, 자진납부 미이행자 260명에 대해서는 16억 원의 분양권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사실상 전매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나머지 530명은 비교적 소액 체납자로, 현재 징수독려 중이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등 34건 4억 7천만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같은 기간 오피스텔 등 13건의 분양권을

30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자금 부족을 이유로 2022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1억 8천여만 원을 체납한 B씨는 이번 조사에서 과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6억 3천만 원 상당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 역시 입주권에 대한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던 체납세를 전액 납부했다.

C씨는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500만 원을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1년 6개월이 넘도록 내지 않고 있었으나, 13억 4천만 원의 하남시 소재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확인돼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전액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의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근거 마련

김도훈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 수출 기반 조성 지원 사업'에 '도내 FTA통상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도훈 의원은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은 31,350개 사로 전국 수출 중소기업 중 31%를 차지, 지역 경제활동의 근간이자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자본력이 부족해 급변하는 무역환경

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FTA 및 관세법에 능통한 전문인력과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FTA 활용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라고 말하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내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행안위 예산안 심의에서 자율방범연합회 운영예산 증액 강력요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부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경기도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중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과 관련해 "내년에 자율방범연합회가 출범하나 실효성 있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적정한 예산을 세워야 한다"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균형발전기획실이 제출한 예산안 중, 주한미군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문화·교육을 소개하는 "주한미군 한국어·역사·문화 교육사업"과 "주한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체험사업"의 예산안과 관련해 "두 사업의 주요 사업 대상과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두 사업을 하나로 합치고, 예산의 일부를 감액해야 한다"고 예산안의 조정의 이유를 밝혔다.

김범상/기자

'청소년 꿈·소망 띄운' 안양일변가 넘버원 페스티벌 성황 속 마무리

최 시장 "꿈 향해 나아가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 풍성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안양시는 청소년을 응원하는 '안양일변가 넘버원 페스티벌'이 지난 22~26일 추위를 잊은 청소년과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고 27일 밝혔다.

만안구 안양일변가 일대에서 5일간 펼쳐진 패션 버스킹, 거리공연, 패션·뷰티 체험 프로그램,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안양일변가 메인무대 앞에서 진행된 '쓰면! 이루어진다!' 프로젝트는 달 모양의 대형 조형물에 꿈과 소망을 적고 기원하는 행사로 청소년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포토존으로도 인기가 많았던 달 조형물은 24일 개막식에 하늘로 띄워져 축제 기간 동안 거리를 밝혔다.

또 최대호 안양시장은 축제 기간 동안 직접 청소년과 소통하며 청소년을 응원했다. 24일 개막식에 이어 25일 '넘버원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청소년들과 '우리가 원하는 도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최 시장은 청소년의 문화 공간 마련, 거리의 휴먼 문제, 안양일변가의 관광자원 개발 등 청소년이 바라는 다양한 안양의 모습에 대해 듣고, 안양이 변화할 부분에 대해 고심했다.

최대호 시장은 26일 폐막식에서 "달에 빼곡히 적힌 청소년들의 꿈과 소망을 오랫동안 보고 또 봤다"며 "청소년이 꿈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고 동시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1인 가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도시 만들겠다"

수원시, 1인 가구 정책 쇼케이스 '혼자여도 괜찮아' 열고 1인 가구 정책 알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인 가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25일 시청 새빛민원실에서 연 1인 가구 정책 쇼케이스 '혼자여도 괜찮아'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1인 가구가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공공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며 "1인 가구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1인 가구에 수원시 1인 가구 정책을 알린 이날 행사는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1인 가구 지원사업 소개, 이재준 시장과 1인 가구 시민들이 함께한 토크쇼, 1인 가구 지원 시민참여단 명칭 투표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쇼케이스는 수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토크쇼에서는 1인 가구 시민들이 원하는 지원 정책을 이야기했다. 한 청년은 "1인 가구 청년 역량강화지원사업 '새빛 솔로(Solo) 자문'에 참여했는데,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수원시의 1인 가구 지원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청년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년은 "1인 가구에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이라며 "1인 가구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어르신은 "소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관리비가 적게 나와서 좋다"며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소형 평형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1인 가구 시민과 수원시 1인 가구 사업 참여자, 수원시 의회 의원, 수원시와 함께 '새빛 솔로(Solo) 자문'을 진행한 수원시여성자

문위원회의 김의순 회장 등 1인 가구 지원사업 단체 대표, 관계 기관 등이 참여했다.

1인 가구 지원 시민참여단 명칭은 투표를 거쳐 '쏘옥(SSOCC) 패밀리'로 선정됐다. 쏘옥은 'Suwon Safe(안심) One Convenience(편의) Connect(연결)'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다.

지난 3월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한 수원시는 1인 가구 유관기관 간담회, 1인 가구 정책 설문조사, 1인 가구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1인 가구 지원 사업·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연결', '안심', '편의'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온라인 맞춤형 플랫폼 개발 ▲1인 가구 마을 네트워크 확대 ▲생활 안심망 제공 ▲주거 안심 확대 ▲돌봄체계 확대 ▲1인 가구 생활 프로그램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총조사 자료(2022년 11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수원시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4.4%에 이른다.

김범상/기자

고양시, 동절기 안전대책 추진...기습한파·폭설 대비

이동환 시장 "따뜻한 날씨·한파 교차...폭설대비 대응체계 구축"

고양특례시는 겨울철 기습적인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인 초등 제설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실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사전준비 작업을 실시한다. 출퇴근 교통로, 고갯길 등 취약 지역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점관리하고 제설차량의 동선을 최적화하기 위해 전진기지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올해 겨울은 북극 온난화와 엘니뇨현상이 맞물리면서 따뜻한 날씨와 갑작스러운 한파가 교차하는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기습적인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신속한 초등 제설 운영

고양시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도로관리과, 구청 안전건설과를 중심으로 제설대비 상황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기상특보가 예보되면 강설 예상 3시간 전 비상근무를 시작하고 1시간 전에는 제설장비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강설확률이 60%를 넘으면 제설작업을 사전 적재하고 작업 거점에 분산 배치하여 제설작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출퇴근 교통로인 서울시 진입도로, 교통정체 및 두절 예상지역, 고속도로 진입로, 상습결빙지역 등 취약지역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점관리한다. 취약지역에는 연화칼춤 등 제설장비를 비치하고 오르막길, 지하차도, 경사로에는 역상 제설제를 살포한다.

10cm 이상 폭설시에는 제설삽날, 그레더 등 물리적 제설장비를 이용하여

도로면으로 눈을 밀어낸 후 실어내는 방식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슷고개, 낙타, 목암, 뒷박, 노고산 고개 등 고갯길은 강설량이 많을 때 교통두절 우려가 높기 때문에 자동염수 분사시설을 설치했다.

출퇴근 시간과 폭설이 겹치면 제설작업이 훨씬 어려워진다. 제설차량이 통행 차량에 가로막혀 제설작업 속도가 느려지고 차량정체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경우에 대비해 차량정체가 발생하기 전 미리 사전제설작업을 실시한다.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고 우회로를 안내한다.

제설차량 전진기지 운영...동선 최적화로 효율성 높여

시는 제설장비로 차량 179대, 삽포기 71대, 차량용 삽날 등 총 548대를 운영한다. 제설제는 연화칼춤 1만 5194톤, 친환경 제설제 5224톤으로 총 2만 418톤을 확보했다.

제설차량이 효율적으로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동선을 최적화하기 위해 발전기지 4개소, 전진기지 6개소를 현장에 가까운 현천동, 화정동, 내곡동, 대화동 등에서 운영한다.

주요 제설구간은 자유로(국도77호선) 22km, 제2자유로(지방도 357호선) 24km, 통일로와 호국로를 합친 30km, 지방도 8개 노선 80km, 시도 45개 노선 207km 구간이다. 시정계 구간에서는 지자체별 제설작업 차이를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양방향 동시소통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와 공조체계를 운영한다. 각 구청에서는 주요도로, 이면도로 및 고속도로 진출입로, 도시계획도로 431km, 이면도로, 주요도로 IC 제설작업을 담당한다.

김범상/기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육교, 경사로, 버스정류장 등 통행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제설한다. 상대적으로 제설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마을 안길, 이면도로의 경우 동별 제설봉사단, 트랙터 제설봉사단과 협력하여 제설작업에 나선다. 시는 '이웃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눈 치우기 함께 해요' 운동을 홍보하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시민들의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수도계량기 동파 대비...24시간 신속 대응팀 운영

시 상수도사업소는 한파로 인한 수도 계량기 동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상수도 대형업체와 협조하여 신속대응팀을 편성하고 동파신고가 접수되면 얼어붙은 수도를 녹이고 깨진 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해 신속하게 출동할 예정이다. 시는 계량기 동파에 취약한 가정들

조사해 보온재를 무료로 배부한다. 시민들이 올바른 수도계량기 관리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동파 예방 홍보물도 배포했다.

또한 폭설·한파로부터 취약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건강고위험군(의료급여수급권자) 집중관리 지원으로 위기상황 극복을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할 세대는 동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지역민원상담센터 ☎120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동절기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안전한 겨울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내 집 앞 내 점포 눈치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성남시, 1인 가구 생활경제포럼 연다

안정된 생활 설계 방안 모색·전파...개별 생활 재무 컨설팅도 진행

성남시는 오는 12월 9일 오후 1시~5시 30분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1가구 생활경제포럼'을 연다.

성남시 전체 37만6179 가구의 33%를 차지하는 1인 가구(12만5515가구)의 안정된 생활 설계 방안을 모색해 시책에 반영·전파하려고 마련하는 자리다.

소진광 가천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 이날 포럼에서 ▲김남순 미래경제연구소장이 '죽기엔 너무 젊고, 살기엔 너무 가난하다'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김영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가 '인구 변화와 경제 환경'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인구·경제·금융·1인 가구 정책 분야 전문가 등 지정 패널 4명이 각 발표 내용에 대해 각각의 의견을 내고, 성남시 1인 가구를 대표한 시민 3명의 자유 토론을 한다.

포럼 참여자 대상 생애주기별 전문가 3명의 강의(세션)도 진행된다.

장소를 분산해 ▲청년기(19~39세)는 시청 산성누리에서 '미래 희망을 위한 재정계획' ▲중년기(40~59세)는



한누리에서 '건강한 경제생활을 위한 재정계획' ▲장년기(60~64세)는 탄천관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재정 점검'에 관한 내용을 듣는다.

이후 희망자에 한해 개별 생활 재무 컨설팅을 지원한다. 김범상/기자

시민과 하나되는 100만 화성축제, 희망을 쓰다

화성시가 25일 동탄호수공원에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백만화성축제, 100만 화성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동탄호수공원에 6만여명의 시민이 모여, 100만 화성을 축하하고 즐기며 희망의 역사를 썼다.

오후 4시 가수 이은미와 이찬원의 식전공연으로 시작된 축제는 '화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기념영상으로 이어지며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비전선포식에서 정명근 화성시장은 "20만의 작은 도시였던 화성이 100만 대도시가 되기까지 시민들의 담과

눈물,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화성시가 한 단계 도약해서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 화성, 시민들이 화성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하는 화성으로 나아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더 살기 좋고, 더 일하기 좋으며, 더 즐거운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부러워하는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선포했다.

또한, 김동원 경기도지사의 축하사와 여러 유명인사의 축하영상을 통해 화성시의 발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하공연에서는 드문소, 가수 라포엠·에일리·윤도현밴드가 무대에 열거

안산시, 내년도 노인일자리아사업 참여자 6천672명 모집

안산시는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6천672명을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노인일자리아사업 규모는 고령층의 생계유지와 노후생활 안정 보장을 위해 올해보다 1천340명 증가한 6천672명으로 확대됐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4개 유형 85개 사업으로, 14개 분야 731명에게 신규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일반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22개 1,000명, 60세 이상 일반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형 사업은 18개 515명 모집으로 확대됐다.

이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신청 가능한 공익활동은 스크론티킴이, 공원관리, 도서관봉사, 재능나눔미 등 44개 사업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 가능한 사회서비스형에는 아동그룹홈도우미, 경로당행정도우미, 시니어유체국도우미 등 22개 사업이 있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시장형 사업에는 GS시니어여행편의점, 화랑찬방, 은빛세차사업, 아파트실버택배, 카페화랑 등 18개 사업과 취업알선형 사업이 있다.

참여희망자는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갖고 안산시니어클럽, 상록구·단원구·동산노인복지관, 상록구·단원구 노인지원,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각 사업 수행기관을 직접 방문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안산시는 올해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국 평가 수행기관 부문에서 동산노인복지관과 안산시니어클럽이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확대에 모범이 되고 있다.

이역백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를 통해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에 활력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일자리 발굴 및 안전한 사업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신청기간 2023. 11. 27(월)~12. 8(일) 9시~17시

모집인원 6,672명

모집대상 인시 거주 주민등록세대

모집지역 안산시(안산시청·동산노인복지관·상록구노인복지관·단원구노인복지관)

신청방법 신청기관 직접 방문 신청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청처 안산시니어클럽, 상록구노인복지관, 단원구노인복지관

구분	참여인원	모집인원	기타인원
공익활동	4,877	1,000	4,877
시장형	515	515	515
취업알선형	280	280	280

용인특례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식약처 표창

'2023 성과 워크숍'에서 멘토링 프로그램 부문서 최우수상 수상



용인특례시는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한 '2023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 워크숍'에서 멘토링 프로그램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7월 개소해 운영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이처럼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시는 개소 당시 먼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한 하남시에서 받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잘 수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노인·장애인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영양사가 없는 급식 인원 50명 미만)의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요양원(노인요양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서비스), 장애인거주 시설 등이 주요 대상이다.

센터는 입소자, 조리원, 요양보호사,

시설상 등 대상별 교육과 함께 일반식, 당노식 등 다양한 형태의 식단과 요리법을 제공하고 입소자 영양관리카드 작성 및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가 명지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운영하는 이 센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규모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체계적인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복지시설의 도움을 받는 취약계층이 위생적이고 영양관리가 된 급식이 제공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의 이영미(명지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센터장은 식중독 예방관리 분야에서 정소연 부센터장은 급식안전관리 분야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식물의약품안전처 표창을 받았다.

김범상/기자

이천시, 2023년 농업생산기반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교육 추진

이천시는 11월 23일부터 12월19일까지 이천시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농산물가공창업보육교육장에서 라이브커머스 장비활용에 관심있는 이천시민 대상으로 '농업생산기반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교육'을 실시한다.

농촌진흥청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농업 생산기반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기술 시범사업]으로 이천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농산물가공창업보육교육장에서 라이브커머스 전용 스튜디오 환경을 설치하고, 실제적인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할 수 있는 촬영장비를 구비하여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기초이론 교육 및 실제적인 촬영 장비 실습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총 5회차 교육으로 세부 내용으로는 △ 라이브커머스 기초 교육, △ 라이브커머스 방송제작교육

및 실습, △ 라이브커머스 송출의 이해, △ 라이브커머스 방송제작 및 장비 습득, △ 라이브커머스 제작 등으로 라이브커머스의 기초이론 및 장비 작동 실습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각각의 교육생들이 모든 장비를 활용하여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제작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이천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농산물가공팀 김동호팀장은 "이번 라이브커머스 장비 활용 교육을 통하여 이천시 우수농산물의 직거래 판매시장 확대와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특색있는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올해 조성한 라이브커머스 전용 촬영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 이한준 LH사장에게 법조타운 교통대책 재검토 요청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연일 광복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11월 8일과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백원국 2차관과 면담한데 이어 2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법조타운 교통대책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은 "과거 민락2·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과정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못해 현재까지 주민들이 심각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며, "새롭게 조성되는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는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락2·고산지구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신도시 등 광역교통개선 추진방안'에 따라, 교통불편개선시급지구에 더해 각각 일반관리지구 및 집중관리지구로 지정돼 뒤늦은 보완대책을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정부 법조타운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의정부 동부지역의 미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실마리로 주목받고 있다.

LH는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맡고 있다. 이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도로 개설·확장 및 기하구조 개선, 경전철 차량기지 임시승강장 개량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근 시장은 민락2·고산지구와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대비한 철도 및 교통환경 개선대책을 제안했다.

우선, 전문기관의 기술적인 검토와 자문을 거쳐 마련한 의정부경전철 노선 연장 및 차량기지 내 역사 개량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만가대 교차로에 대해 법조타운 입주 이후 교차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 우려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시는 11월 28일 오후 2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8호선 연장 및 GTX-F노선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부시 철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민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최만식/기자

광명시, 공직자 평화통일 감수성 키우는 현장 체험 진행

광명시는 지난 23일과 24일 1박 2일간 강화도 DMZ 접경지역에서 '2023 광명시 공직자 평화통일교육'을 진행했다.

공직자 평화통일교육은 접경지역인 강화도에서 남북분단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토론하며 남북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에 참여한 20여 명의 공직자들은 (사)우리누리 평화운동대표 김영애 강사의 '평화의 길! 통일의 길!', 이시우 강사의 '평화가 간절한 자는 유라시아를 본다' 등 강연과 공동도 해안 철책길 걷기, 강화평화전망대 방문 등 현장 체

험을 통해 평화 감수성을 키우며 민주적, 생태적 관계와 구조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공직자는 "남북 접경지역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실랑민들의 아픔을 느끼는 활동을 통해 역사의 아픔을 되새기며 평화의 중요성, 전쟁의

폐해를 마음속 깊이 느끼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년 등 시민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현장 체험 교육을 진행해 오다 올해 공직자까지 확대해 진행했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을 통해 평화와 통일 감수성을 높여 평화도시 광명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윤용민/기자

하남시, '2023 올해의 SNS' 블로그 부문 '최우수상' 수상

하남시가 '제9회 2023 올해의 SNS (2023 SNS OF THE YEAR AWARDS)' 블로그 부문(기초지자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의 SNS'는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며 총 10개의 플랫폼(부문)에 기업, 정부부처, 광역·기초지자체, 공기업과 비영리단체 등 200여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매체별 활용도를 측정·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상이다.

하남시 공식 블로그는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크게 5개의 카테고리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있으며, ▲데일리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하는 '오늘의하남' ▲주요 시정 정보를 자세히 소개하는 '소식통하남' ▲하남시의 일상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취재하는 '일상속하남' ▲전문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건강 레시피, 육아 등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이야기하남' ▲시민들에게 매월 이벤트 및 디지털 굿즈 등 다양

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다함께하남'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또한, 블로그는 함께 운영 중인 타 채널보다 상대적으로 주요 소식 및 정책 등을 상세하고 깊이 있게 다루며, 채널 간의 유기적인 연동으로 시 공식 소셜미디어의 허브(Hub)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하남시가 가장 비중있게 운영 중인 대표 채널이기도 하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앞으로도 하남시 블로그가 시의 다양한 소식들을 알리는 하남시의 대표 채널로서 더 역할에 충실하고 꾸준히 사랑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이번 '2023 올해의 SNS' 블로그 부문(기초지자체) 최우수상 수상으로 지난 7월과 10월 각각 '2023 소셜미디어워드'에서 인스타그램 부문 대상, '2023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포함해 올해 소셜미디어 분야 3관왕의 영예를 얻게 됐다.

김범상/기자

경쟁의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동해안 청정해역! 안전한 우리 수산물!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전남 산·관·학 전문가, 건설산업 발전 머리 맞대

전라남도가 건설 분야 산·관·학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신기술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건설산업 발전 상생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건설 분야 공무원, 학회와 협회, 전남·광주지역 8개 대학 토목공학과 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건설산업기술 연찬회'를 지난 24일까지 이틀간 나주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개최했다.

연찬회에선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가 주관해 '지역건설산업 상생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란 주제로 건설 분야 신기술과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건설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는 박국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장의 '지방지역 도로관리 역량 강화 방안 고찰'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성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의 '열차하

건설산업기술 연찬회서 신기술·우수사례 등 공유



중에 의한 철도교량의 동적거동 분석 기술 및 기준', 박우선 한국해양연구원 박사의 '자연재해 대비 항만의 리모델

강화 및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건설정보 공유를 위해 '건설 신기술·우수사례 전시회'를 개최, 건설 현장에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화하는 기회의 장을 제공했다.

전남도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제시된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이상기후에 대한 건설기술 대응 방안 등을 활용해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개막식에서 "전남형 트램과 광주·영암 아우토반 건설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을 통해 전남 행복시대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건설기술인의 힘과 지혜를 모아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배/기자

순천시, 제5차 재가 암환자 자조 모임 운영

건강한 수면을 위한 압화수면등 만들기 체험 진행

순천시는 지난 24일 재가 암환자 및 가족 44명을 대상으로 5차 자조 모임을 운영했다.

이번 활동은 암 환자들의 건강한 수면을 위한 압화수면등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됐으며, 천연재료를 이용한 공예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자 했다.

참여자들은 체험과 더불어 각자의 수면 상태를 공유하고 불면증을 이겨내는 팁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암 환자는 건강한 사람보다 불면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중 25~40%는 암 치료 시작 후 24~30개월 이내 불면증 증상으로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잘되어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힘이 많이 된다"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연초 자조 모임을 시작했을 때와 마무리 되어가는 지금 참여자들의 표정과 발걸음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며 매년 찾아와 주는 참여자들을 위해 더 좋은 시간과 자리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재가 암환자 자조 모임은 총 6회 진행 예정으로 12월 한 차례를 남겨 두고 있으며, 시는 마지막 모임의 설문조사를 통해 올해 운영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도를 파악하여 내년 자조 모임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승준/기자



남원시,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공동 시연회 개최

다양한 소방 드론의 시연 '화재 감시부터 접근이 어려운 화재 대응까지!'



남원시가 24일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인 운봉읍 주촌리 일원에서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2023년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공동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남원시가 2023년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되어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 실증 성과를 확인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소방 드

론의 상용화 모형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주요 시연내용은 화재 감시 시스템 실증, 고층량 드론 활용 화재 진화 시스템 실증, 접근이 어려운 고층 건물의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강화유리 파괴 장치와 소화액 분사장치 점검 및 시연 등으로, 시연 과정은 모두 이번사업을 통해 구축된 드론 관제 체계로 통합 제어하고 관리됐다.

국토교통부에 선정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남원시와 (주)팔레트웍스(관제시스템), (주)와우미래기술(고층량 소방 드론), 스페이스위(드론 레저스포츠 활성화)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실증을 수행했으며, '(주)스페이스위'에서는 지난 10월 개최된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에서 '드론스 위 챌린지' 경기를 선보여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은 (주)서우와(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가 참여하여 접근이 어려운 화재에 대응 할 수 있는 다

목적 소방 드론 실증을 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드론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드론 레저스포츠 도시 남원', '드론 공공서비스 활성화 도시 남원' 등 추진한 성과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드론 문화의 도시 남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드론산업을 위해 LX드론활용센터 구축, 드론 통합관제센터 구축,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등 드론 레저스포츠 인재양성 및 전문가 육성은 물론 교육·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및 남원 드론 문화체험관 건립을 통해 드론 레저스포츠 중심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남출/기자

완도군청 역도실업팀, 전국대회서 '메달 9개 획득' 맹활약

전국 실업 역도 선수권 대회 출전 메달 총 9개 차지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실업팀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충남 서천 군민체육관에서 열린 '2023 전국 실업 역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6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남자 일반부 61kg급에 출전한 김동민 선수는 인상 115kg, 용상 150kg, 합계 265kg를 들어 올려 금메달 3개를 획득했고, +109kg급에 출전한 이양재 선수는 인상 180kg, 용상

233kg, 합계 413kg를 들어 올려 금메달 3개를 차지했다.

금메달 3개를 목에 건 이양재 선수는 최우수 선수상도 수상했다.

여자 일반부 +87kg급에 출전한 임정희 선수는 인상 80kg, 용상 100kg, 합계 180kg를 들어 올려 동메달을 3개를 획득했다.

81kg급 강민우 선수는 어깨 부상으로 아쉽게 기권했다.

서호철 감독은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완도군청 역도실업팀 서호철 감독은 "올해 마지막 대회에서 많은 메달을 차지하고 큰 상을 받으며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역도 실업팀에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은 완도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완도군청 역도실업팀은 올해만 5개 대회에 참가하여 금 27개, 은 4개, 동 9개 총 40개의 메달을 따내며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양영울/기자

함평군, '제19기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연말총회' 성료

전국 각지의 국화 애호가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화동호회'의 연말총회가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됐다.

27일 함평군은 "'제19기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연말총회'가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대한민국 국화동호회를 새롭게 이끌 제20기 임원진 선출과 함께 2024년 국화동호회 운영 및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전국국화작품 경진대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렸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농림식품부장관상)에 임광철(51세)씨를 비롯한 총 13작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동호회원들의 국화와 함평을 사랑하는 열정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화대전이 전국 최고의 국화축제로 인정 받고있다"며 "내년에도 최고의 작품으로 국화대전을 비롯해 함평을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윤병태 나주시장, 내년도 국비확보 전력... 여·야 예결위원 면담 광폭 행보

2024년도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 국비 반영 총력



윤병태 나주시장이 국회에서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전력 투구에 나섰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전날 윤병태 시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결소위 위원들과 만나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송연석 예결위 간사, 이원택, 송석준 예결소위 위원에 이어 신정훈, 이계호 의원과 면담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 동력이 될 미래 첨단산업, 스마트농업, 원도심·혁신도시 활성화 관련 현안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비 반영을 위한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윤 시장은 에너지신산업 선도도시 랜드마크가 될 '국립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과 미래 직류기반 전력망 구축에 따른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을 미래 첨단산업 핵심 현안 사업으로 건의했다.

특히 글로벌 혁신특구는 에너지 산·학·연 인프라를 구축한 나주시를 중심으로

기존 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직류 전력망 플랫폼 실증을 통해 글로벌 기술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윤 시장은 선진화된 스마트농업 조기 확산, 청년·귀농 농업인의 지역 정착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안전한 '관·학 협력 인큐베이팅 스마트팜', 금성관·목사내야·나주향교 등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나주읍성권역 한국형 정원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내년도 정부 출연금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난항이 예상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현황을 설명하며 세계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국외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미래첨단산업, 스마트농업, 관광산업은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를 향한 나주의 성장 동력"이라며 "전라남도, 우리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와 더불어 국회,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국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김희수 진도군수, 노인복지 대상 수상

다양한 노인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노력 인정

김희수 진도군수가 (사)대한노인회 주관, '제3회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 기초자치단체장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노인복지대상은 어르신들 위해 공헌하고 경로효친의 정신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그동안 진도군은 경로당 등 노인복지 시설의 환경개선과 노인 일자리 확대, 사회활동 지원, 찾아가는 물리치료와 체조교실, 한글학교 운영 등으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여가생활과 사회참여에 힘써왔다.

또한 마을 경로당에 지역사회 봉사지도원을 위촉해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4대 가정 효도수당 지급, 먼 단위 노인복지관 신·증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민이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진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관심을 갖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맞춤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장흥군에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들어선다"

김성군수 "소방·재난산업 아우르는 종합 안전체험관 만들 것"

장흥군이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유치에 성공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남 국민안전체험관을 장흥군 우산리 우드랜드 일원에 조성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올해 6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공모를 실시했다.

모두 13개 지자체가 참가한 이번 공모에서 장흥군은 부지 사전매입, 차별화된 지역 특성 프로그램을 앞세워 유치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공모를 주관한 행안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종합해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장흥읍 우산리 일원에 조성되는 전남 국민안전체험관은 총 사업비 370억원(국비 120, 도비125, 군비125)이 투입된다.

지상 4층, 지하1층, 연면적 6,000㎡ 규모로 2024~2028년까지 5년 동안 설계·시설결정·공사를 진행하고 2028년 문을 열 예정이다.

전남 국민안전체험관은 8개 체험존

과 26개 체험시설로 구성된다.

그간 특별한 안전체험교육시설이 없던 전남에 건립되는 첫번째 대형 종합안전체험관인 만큼, 단순한 안전교육을 넘어 재난·공연·전시 등 종합 안전문화교육시설로 조성할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난 해 10월 국정설명회에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국회와 관련 부처를 찾아다니며 지역 유치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장흥군은 전남 국민안전체험관이 조성되면 연간 20만 명 이상이 체험관을 방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입인구 증가와 400여명의 일자리 유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모여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유치가 성공했다"며, "소방, 재난, 산업 안전과 교육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체험관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전북도, 도 산하 16개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조직진단 마무리, 본격 혁신 행보

김관영 도지사, 취임 후 출연기관 체질 개선 위한 조직진단 지시



전북도가 도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했던 공공기관 조직진단을 마무리하고 혁신안을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24일 밝혔다.

전북도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실시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매뉴얼 작성 용역' 최종보고를 통해 지난 15일자로 조직진단 용역을 마무리했고, 최종보고서에는 민선8기 공공

인사·재정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공공기관 표준매뉴얼 마련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관리자 및 실무진, 전북도 주관부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기관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최종보고서에는 공공기관 간 기능조정안과 조직·인사·재정·보수분야의 통합매뉴얼 및 기관별 개선과제 등이 제안됐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은 외국인 유학생 지원업무 및 정보통신기술(ICT) 거점사업 일원화 등 4개의 기능조정(안)을 제시하고 추진기간에 따라 단기·중기 과제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업무 국제협력진흥원 이관(단기 과제) ▲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의 정보통신기술(ICT) 거점기능 콘텐츠융합진흥원으로 집적(중기 과제) ▲전북개발공사의 문화예술시설 운영관리 업무 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단기 과제) ▲전북연구원 정책연구분야 기능 강화(중기 과제) 등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통합매뉴얼은 그동안 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규정 등

이남출/기자

보성군,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공모사업' 최우수상 수상

보성군은 지난 23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관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국비 공모사업'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이번 공모사업에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보성군, 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우리동네복지기동대가 서로 협약을 맺고 추진한 'WE ♥ 수리수리 365'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365'를 만들어가기 위해 △찾아가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에서 맞춤 배달, △건강검진 병행 동행 서비스, △미등록 장애인의 장애 등록 신청, 안내, 검진 동행 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 상태 개선과 건강관리 능력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장구 수리 59건, 건강검진 병원 동행 서비스 109명, 장애인 등록·발급 23건 등으로 약 190명의 장애인에게 이동권과 건강권을 보장했다.

또한, 민관 협치를 통한 민간 자원 발굴과 12건의 장애인 사례 관리, 장애인 자립을 위해 노력한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됐다.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임영서 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분들도 나와 똑같은 이웃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며 "내년에도 WE ♥ 수리수리 365 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지역 공동사회체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최현영/기자



목포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당부

5등급 경유차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 운행 제한

목포시가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기간보다 45%정도 높고 기준치(50µg/m³)를 넘는 날의 80%가량이 몰린 12월부터 3월까지 특별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빈도 등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전개 등 미세먼지 저감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광주, 대전, 세종, 부산, 대구, 울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 시에는 1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다만, 광주, 대전, 세종, 부산, 대구,



울산은 영업용,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 '미세먼지법'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와 매년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공해 조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적극 동참해 달라"며 "특히 인근 광주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므로 운행에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강진군,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사업' 본격 시행

엄마도 아가도 든든해요!

강진군이 임신부 및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난 11월부터 본격 시행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임신부 및 2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 임신부와 아기의 건강 상태 확인 및 아기 발달 상담, 양육 교육, 정서적 지지 등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방문 서비스는 산전·산후로 진행되며 건강 및 사회심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방문 및 지속방문군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기본방문은 출산 후 8주 이내 산모의 영양, 운동, 수면 등 건강 상태와 신생아의 성장 발달 상태를 살피고 모유 수유, 아기 발달기, 재우기 등 총 4회에 걸쳐 육아 정보를 제공한다.

지속 방문은 기본방문에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아기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25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게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진군에 주소를 둔 임부의 경우 보건소에 임부 등록 시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를 받고 싶으나 누락될 경우 1층 모자건강상담실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가정방문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미래 세대 건강향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지난해부터 전국 최고 최대 수준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역소멸과 인구감소저지를 위해 독자적인 정책을 펼쳐며 행정의 새로운 대안 제시로 주목받고 있다.

추윤호/기자

구례군 간전면, '100세 시대, 농업인의 인생 설계'를 위한 명사 초청 강연회 개최

구례군 간전면은 11월 25일 다목적면민회관에서 '100세 시대, 농업인의 인생 설계와 자산관리'라는 주제로 명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행복100세자산관리연구회 강창희 대표가 강사로 나서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연령별 노후 준비 방법과 인생 설계,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실천 팁 등을 공유했다.

강 대표는 미래에셋 금융그룹 부회장, 트러스트자산운용 연구포럼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노후 설계 전도사로서 전국을 누비며 전국 자산교육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50여명의 면민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면민회관을 가득 채웠다.

강연회를 주최한 주민자치 위원회 이종호 위원장은 "농업인 100세 시대에 대응

하고자 노후 대비 전문가 강연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면민 의견을 반영해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창희 명사는 "면민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있었기에 우수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1004점 신안, 나눔의 섬으로 거듭나다

신안군은 지난 23일 신안군민체육관에서 신안 나눔리더 1호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23명이 나눔리더 단체 가입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눔리더 가입자는 박우량 신안군수,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최미숙 의원, 신안군의회 권오연 의원, 김기만 의원, 안원준 의원, 이상주 의원, 박용찬 의원, 최춘욱 의원, 김용배 의원, 고인숙 의원, 이종만 신안군복지재단 이사장, 조성철 신안군체육회장, 안미영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장, 김정순 신안군여성 자원봉사회장, 유억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협의회 협의회장, 김용기 자은운수 대표, 강형선 신안군정원수사회 협동조합 이사장, 이정심 팔금면여성단체협의회장, 최정남 꿈이 있는 집 원장, 최재형 신안어의풍력 대표, 최원화 대연애드 대표 등 총 23명으로 신안 나눔리더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박우량 신안군수와 신안군의회 의원, 신안군 지역구 전라남도의회 의원이 전원 나눔리더로 가입하는 모습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봉사 정신을 강조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또한 11명의 신안군 관계·사회기관 단체장이 한마음을 한뜻으로 나눔리더에 가입하여 따뜻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었다.

신안 나눔리더 1호로 가입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해 준 23명의 나눔리더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나눔리더 가입식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나눔 리더는 나눔을 실천하는 개인 기부자 모임을, 1년 안에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신안군은 따뜻한 나눔을 선사해 줄 새로운 나눔 리더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다.

김영진/기자



경북도, 지방대는 우리가 살린다!! MZ대학생 정책 아이디어콘서트 개최

전국에서 참여한 8개 팀의 대학생들이 열린 프레젠테이션 발표

경상북도는 지난 24일 경북도청에서 '지방대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제로 하여 2023년 전국 대학생 정책 아이디어 콘서트 본선을 개최했다.

전국 대학생 정책 아이디어 콘서트는 미래 주역인 대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경상북도 정책현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정책 아이디어 토론회는 지난 9월부터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가팀을 모집한 결과 역대 최다인 98개 팀이 신청했고, 그중 72개 팀이 서류심사를 통과해 예선심사를 통과한 8개 팀이 본선에서 경쟁하게 됐다.

이번 대학생 정책 아이디어 프레젠테이션 주제는 '지방대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로 최근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에 대해 그 구성원인 대학생들에게 아이디어를 받아 보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은 전체 참가팀 중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엄격한 블라

인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날 대회 본선에서는 자신들이 직면한 대학 문제에 대하여 솔직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쏟아 냈으며 심사위원들과 평평한 질의 응답시간을 펼쳐져

행했다.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프레젠테이션 결과, 정팀(경희대학교 김민성)이 대상을 차지하고, 기팔나팀(대구대학교 김소희, 서은지, 윤정아)이 최우수상을 차지해 각각 경상북도지사 상장과 함께 상금을 받았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번 대학생 정책 제안 주제인 지방대학 활성화 방안은 우리 경북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자 대학생들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문제이기에 학생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아이디어들이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어르신 신체활동 운동 프로그램 성황리 마무리

실버세대 겨냥한 맞춤형 운동으로 신체활동 증대·건강증진 만족도 UP



안동시가 보건지소에서 읍·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신체활동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3월부터 남선면, 일직면, 도산면 보건지소를 시작으로 서후면, 와룡면, 길안면 보건지소에서 신체활동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년도 사업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실버댄스, 기공체조, 원예교실, 웃음치료, 천아트 등 지역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제공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5

개 경로당과 3개 보건지소에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체활동 증대와 유년성 강화 등에 도움을 주고 근력저하로 인한 낙상 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면서 주민 건강증진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다.

김영남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운동 실천을 향상과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 플랫폼종사자 일터 개선... 겨울에는 발열 조끼 지원!

여름철 아이스 조끼 111개에 이어 겨울에는 발열 조끼 90개 지원, 대리운전 기사에게는 보디캠도 대여

부산시는 플랫폼종사자의 따뜻하고 안전한 일터환경 조성을 위해 발열 조끼 90개를 지원하고, 대리운전 기사에게는 보디캠을 대여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며, 최근 산업계계 변화에 따라 플랫폼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보호 조끼 없이 취약한 여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름에는 플랫폼종사자들에게 아이스 조끼 111개를 지급했으며, 이번 겨울에는 발열 조끼를 지급하는 등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지원한다.

또한, 여성 등 자기방어에 취약한 대리운전 기사들에게는 신변 보호를 위한 보디캠을 대여해 폭력·성추행 범죄 등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기사와 이용자 간의 분쟁 해결에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발열 조끼는 11월 30일부터 시행하는 부산이동노동자지원센터의 직무·안전 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교육 신청은 부산이동노동자 지원센터에서 11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보디캠 대여는 대리운전 기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방문 신청을 받는다.

두 사업의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사업장)이 되어 있거나

올해 9~11월 중 50% 이상 부산지역 근무 이력이 있는 플랫폼 종사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부산이동노동자지원센터 3곳(서면·사상·해운대)에서 신청을 받고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이동노동자지원센터는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원예테라피, 다육농장체험과 자기계발을 위한 기타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용객을 위한 복지향상 및 힐링 공간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부산시는 서면, 사상, 해운대 등 3곳의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이동노동자 종합복지 체계를 구축했다"라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앞으로도 일터 개선 등 권익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대구광역시, 보건복지부 주최 재난의료종합훈련대회 2관왕 쾌거

대구광역시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3년 재난의료 종합훈련대회'에 참가해 전국 15개 시·도가 함께한 자리에서 특별상(보건복지부장관상) 및 도상훈련장려상(국립중앙의료원장상)을 수상해 2관왕을 달성했다.

'2023년 재난의료 종합훈련대회'는 재난의료 대응기관(보건소, 재난거점병원, 소방)별 역할을 숙지하고 현장 협업체계를

강화하고자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이 주관해 진행됐다.

대회는 다수 사상자 발생 시 현장 초기 대응에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등 재난 대응 전 과정에 대한 도상훈련과 현장응급의료소 텐트 설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의 숙련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대회를 위해 중구보건소 신속대응반, 중부소방서 구급대, 경북대학교병원 재난의료지원팀으로 구성된 대표팀을 만들어 참가했으며, 대회 관계자로부터 "신속한 대응체계가 잘 구축돼 있고, 보건소·의료기관·소방 등 유관기관의 역할 분담 및 연계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대구는 평소에도 다양한 교육, 훈련을 통해 재난의료 대응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 교육, 훈련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재난응급의료 대응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윤경희 청송군수, 법무부에 교정시설 추가 건립 당위성 피력

교도소는 혐오시설? 청송군은 절호의 기회

윤경희 청송군수는 경북북부 교정시설 추가 건립의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해 11월 23일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면담을 가졌다.

윤경희 군수는 이 자리에서 기존 경북북부 교정시설 내 여성교도소를 신축하고 교정공무원 숙소를 추가로 건립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발전 가능성을 적극 설명했다.

특히 10여 년 전부터 청송군은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여성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피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효과를 잘 알고 있어

어느 지자체보다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청송군은 1981년 보호감호소를 시작으로 4개의 교도소가 위치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교정타운으로 40년이 넘게 사회정의와 수용자 교화를 무탈하게 수행했으며, 교정시설 인근 문화체육센터, 도서관, 키즈카페, 체육공원 등이 인접하고 있어 여성교도소와 교정공무원 숙소 건립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다.

또한 수용인원 1,000명 규모의 교정시설이 들어서면 교정공무원 400여 명 정도의 직접적인 고용효과와 더불어, 지역물품 구매, 주거, 편의·교육시설 등 인프라 확충과 면회객 등이 드나들며 관

계인구 증가로 이어져 군 경제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청송군은 교도소가 혐오시설이라는 표현은 시대착오적인 사고라 판단하고 일찍부터 지역사회 방안을 강구했으며, 여성교도소 건립뿐만 아니라 법무부 외국인 보호소 유치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교정시설 추가 건립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우리군의 필수과제"라며 "지역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조속히 여성교도소 건립 결정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교도소 유치에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양군종합자원봉사센터, '김장 담그는 날' 행사 실시

"사랑의 김장 따뜻한 겨울을 기대한다."

영양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11월 24일 실버봉사단과 개인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함께 '김장 담그는 날' 행사를 가졌다.

이번 김장 담그는 날 행사는 영양군 실버봉사단 20명, 개인 자원봉사자 및 센터직원 10명이 참여했으며, 영양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700kg의 배추로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는 행사가 진행

됐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자원봉사센터 반찬 지원 대상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경북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추천 가구 등 총 200여 가구에 전달됐다.

김길동 영양군종합자원봉사센터장은 "김장 봉사활동으로 관심과 돌봄이 더욱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 자원봉사자들

들의 마음이 전해져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문경시 - (주)평산레저, 문경 호계CC 건립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문경시는 11월 24일 14시 시청 제2회의실에서 문경 호계CC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현국 문경시장, 황재용 문경시의회의장, 의원, (주)평산레저 신상조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평산레저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양해각서(MOU)는 호계면 호계리 일원에 28만평 규모의 골프장 18홀, 클럽하우스, 골프텔, 그늘집, 리조트 건립 등 90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상조 (주)평산레저 대표이사는 "문경은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명소로 많

은 이들의 각광을 받고 있으며, 호계CC가 문경에 조성된다면 교통의 중심지로서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오늘 이 자리가 지역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호계CC를 조성하여 우리가 관광 레저도시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각종 민자유치를 위한 노력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경북도, 구조구급기술 경진대회 개최로 민·관협력 강화

도내 261개 재난안전 관련 단체의 연합인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

경북도는 지난 24일 도 청소년수련원(김천시 소재)에서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대표 유재용) 회원 및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구조구급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는 2006년에 조직되어 경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종합자원봉사센터, 도로교통공단, 가스안전공사, 해병전우회 등 도 단위 기관·단체들과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수난구조대 등 시군 단위 단체까지 총 261개 재난안전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민간주도 협의체로서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 재난피해현장 복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단체이다.

이날 행사는 지난 여름 경북 북부의 호우피해나 태풍 카눈 등 재난피해 복구활동은 물론, 다양한 단체별 활동을 추진해 온 재난안전네트워크 기관·단체 간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의 긴밀한 재



난대응 협조체계를 다지기 위하여 마련됐다.

행사는 재난 예방과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회원들에 대한 유공자 표창(도지사 5명, 도의장 5명), 재난현장대응 구조구급기술 경진대회, 재난대응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의 주 행사인 구조구급기술 경진대회에서는 ▲부상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익수자 구조 ▲소화기·소화전 사용 ▲화재 진화 등 5개 종목에 대해 14개 시군의 단체가 시군청의 협조로 팀(8명)별로 참여해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맘껏 발휘하고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경진대회 결과 상주시가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으며, 최우수에 김천시, 우수에 경산시, 장려에 영천시·영주시가 각각 선정되어 부상으로 안전용품 받았다.

이영석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에도 및 각 시군에서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재난안전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은 반드시 필요한 보배와 같은 존재"라며, "앞으로도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경북 실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울진 오백년소나무·뫼난이소나무 치료 받는다

정밀진단결과에 따라 외과수술 등 보호조치 시행

울진국유림관리소는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소광리 내 금강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11월말 외과수술 등 보호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의 보호수는 대왕소나무와 오백년소나무, 뫼난이소나무 3그루로 매년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8월 국립산림과학원과 나무병원에 의뢰해 실시한 정밀진단결과 오백년소나무와 뫼난이소나무가 위험성 종합진단 결과 D등급(위험성 높음)과 C등급(중급 위험성)을 각각 받아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두 소나무는 소광리 소나무숲 내 탐방로 변에 있어 탐방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나, 십여 년 전 외과수술을 받은 곳에 빗물이 스며들어 목질부 부후가 몇 년에 걸쳐 진행됐고, 오백년소나무는 많이 기울어져 있어 태풍 등에 의한 도

복(쓰러짐) 위험이 커, 지난 10월 23일 울진군과 남부지방산림청,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밀진단 결과를 설명하고 외과수술 등 보호조치 시행을 결정한 바 있다.

외과수술은 부패부 살균, 살충, 방부, 동공충전, 인공수피, 산화방지처리 등이 시행되며, 추가적인 안전대책으로 수관 제거, 토양 제거, 뿌리 조사, 당김줄 설치 작업 등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오백년소나무와 뫼난이소나무는 울진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만큼 정기적인 진단과 적기에 필요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소광리 금강소나무숲 내 보호수들을 건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경주시, 시민축제운영단과 제50회 신라문화제 성과 공유

소속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 통해 긍정적 파트너십 형성



경주시가 지난 25일 예술의 전당 5층에서 제50회 신라문화제의 감동을 함께한 시민축제운영단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신라문화제 After Party'

라는 제목으로 주낙영 시장, 오기현 경주 문화재단 대표를 비롯한 시민축제운영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인터뷰 및 신라문화제 하이라이트 영상을 시작으로 감사장 전달, 공연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낙영 시장은 시민축제운영단으로 신라문화제의 불업과 시민 참여형 축제의 표본을 보여 준 시민축제학교 △서포터즈 △화랑원화단 각 대표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신라문화제는 지난해부터 선보인 시민축제운영단을 조기 출범하고 규모를 더욱 확대 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중 단원 홍보였던 것은 '시민축제학교'다.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87명의 시민들이 3개 분반 12팀으로 나뉘어 참가했다.

이들은 축제기간 동안 생활문화, 거리예술, 마을축제 등 1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했다.

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된 51명의 화랑원화단은 7월부터 환경교육 8주차를 수

료했다. 이어 행사 중 폐자재를 활용한 친환경 작품을 전시했으며, 환경정화 활동(플로깅)도 수행해 환경오염에 경종을 울렸다.

시민홍보단 서포터즈 역할도 빛을 발했다. 181명의 시민들은 신라문화제는 물론 지역 문화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을 축제장으로 끌어 들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주낙영 시장은 "제50회 신라문화제는 시민의 문화 예술적 역량과 자부심을 확인해 준 행사였다"며 "내년에는 시민축제운영단을 더욱 확대해 신라문화제가 우리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봉화군, 부산 유기농·친환경·귀농귀촌 박람회 참가해 귀농귀촌인 유치 위한 홍보 펼쳐



봉화군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13회 부산 유기농·친환경·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주)메세코리아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전국 지자체들의 귀농귀촌 정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지역 농특산물을 전시하는 지자체관과 더불어 친환경 유기농 식품, 제품 및 스마트팜 등 다양한 농업 트렌드 전시관을 운영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풍부한 귀농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봉화군은 농촌활력과 담당 공무원과

귀농 사무장이 참가해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도시민에게 봉화군의 지역 현황과 각종 귀농 지원 정책사업에 대한 정보 및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봉화군의 특색 있는 농특산물을 홍보했다.

또한 봉화군에서 추진 중인 두지역살기 기반조성 사업, 전입축적금 지급 등 차별화된 인구 유치 사업과 청량산도립공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청정하고 수려한 지역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박람회에 방문한 도시민들에게 귀농귀촌 1번지 봉화군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2023 숲 가꾸기의 날' 행사 개최

43억원 예산 투입해 1,500ha 산림에 숲 가꾸기 사업 추진



영덕군은 11월 숲 가꾸기 기간을 맞아 지난 23일 영덕읍 창포리 산림생태공원 일원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겸한

'2023년 숲 가꾸기의 날' 행사를 열었다. 화창한 가을 날씨와 함께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산림 관련 기관·단체와 주민

60여 명이 참여해 산림생태공원 내 소나무, 메타세콰이어 등 조경수에 고형비료 주기, 가지정리, 주변 환경정화 등의 활동

장문화/기자

포항시, 여가부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 선정

국비 1억 포함 1억 4천만 원 사업비로 은둔·고립형 청소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포항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2024년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은 국비 1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억 4천만 원으로 은둔·고립형 청소년의 조기 발굴부터 맞춤형 서비스, 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시는 공모사업과 함께 2024년 지역 청소년들의 은둔·고립 실태조사 용역을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포항에 거주하는 은둔·고립 청소년에 대해 찾아가는 발굴 및 지원수요를 파악해 방문상담지도, 학습방문, 치유지원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주요 내용으로 먼저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을 우선으로 조사해 (재)포항시청소년재단을 거점으로 한 포항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진철 교육청청소년과장은 "이번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과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지역 내 은둔·고립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2023년 하반기 신규 지정문화재 지정서 전달식

이철우 도지사, "경북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16건 중 6건을 보유해 경북 위상을 높였다"면서, "앞으로도 우수 문화재 지속 발굴, 세계에서 인정받도록 힘쓰겠다" 밝혀

오도창 영양군수, "앞으로 군은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실마을이 반드시 기독교문화와 유교문화가 공존하는 관광상품지로 만들어 달라"고 밝혀



이철우 경북도지사



오도창 영양군수

경북도는 지난 8일, 2023년 하반기 신규로 지정된 유형문화재 7건과 무형문화재, 기념물 포함 총 15건에 대한 문화재 지정서를 문화재 소유자에게 직접 전달하며 이를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재는 류별도 지정 유형문화재 7건, 무형문화재 1건, 기념물 1건, 민속문화재 2건, 문화재 4건을 포함 총 15건으로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도지정 유형문화재**는 고려 '벽송정 유계안', 경주 '백운암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경주 '백운암 소장 묘법연화경', 안동 '대원사 소장 현왕도', 안동 '석탑사 아미타여래도', 문경 '김룡사 사천왕도', 문경 '탁영 김일손 문중 소장 고문서' 포함 총 7건이다.

▲ 무형문화재로는 총 1건으로 '경주 송덕전 제례'를 지정하고 '(사)신라오릉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지정했고, ▲ 기념물로는 안동 '임호서당' 1건이 지정됐으며, ▲ 민속문화재로는 2건으로 영덕 '동애고택'과 청도 '풍각제일교회 소장자료'가 최초로 도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 문화재자료는 안동 '석탑사 산신도', 영천 '아계서사', 봉화 '애죽헌', 영양 '조영길가옥'을 포함 총 4건이다.

이번 문화재 지정으로 경북도는 총 2,254건(국가지정 762, 국가등록 66, 도지정 841, 도등록 1, 문화재자료 584)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번에 지정된 유·

무형 문화재와 영양 조영길 가옥에 대해 살펴보았다.

▲ **'고령 벽송정 유계안'**은 유형문화재로 16세기 초 고령 지역의 유림들이 벽송정

이라는 정자를 중심으로 모여 계를 형성하고 현재까지 유지하며 작성한 문헌자료로서 일괄로 남아 있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 **'안동 임호서당'**은 1853년 안동 유림과 후손들이 운천 김용을 기리고자 건립한 기념물로써 강당은 협동학교 교사로 사용하던 백하구려(도기념물)의 사당채를 1921년 옮겨 온 것으로 유교 사상과 개화사상의 접목이라는 의미와 함께 서당 교육과 근대 교육의 결합과 변화를 볼 수 있어 가치가 있다.

▲ **'경주 송덕전 제례'**는 무형문화재로 경주 송덕전에서 봉행하는 박혁거세를 기리는 제례이며, (사)신라오릉보존회는 제물 목록과 준비과정, 출기, 축문 등 제례 봉행과 관련된 사안들을 기록화하는 등 전통을 지키며 제례 문화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애써오고 있다.

▲ **'영양 조영길 가옥'**은 문화재로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에 위치한 이조시대 한양 조씨의 본산이요 대한민국 청록파 시인 조지훈 생가가 위치해 전국의 수많은 문화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마을로써 이 마을 선비들은 일찍 개화사상을 수용, 1905년, 서양의 기독교문화를 받아 들여 여타지역과 달리 기독교 문화와 유교문화가 공존하는 마을로써 앞으로 이 두 문화가 공존하는 관광상품지 개발이 매우 뜻깊고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한껏 발휘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도지사는 선조가 물려준 문화유산을 고이 지켜오신 문화재 소유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경상북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16건 중 6건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보고(寶庫)로서 경상북도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문화재를 지속 발굴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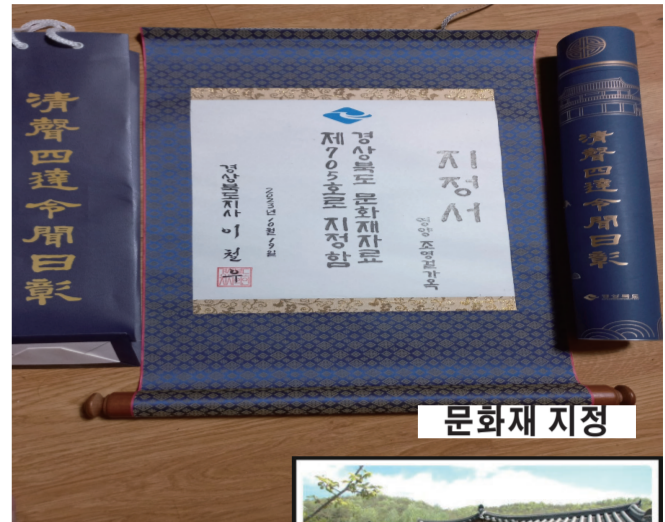
오도창 영양군수는 "조영길가옥의 문화재지정 축하와 함께 조석환 박사님이 이곳 영양출신이란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며 "지난 2022년 영양취임고객의 문화재 지정 노력을 위한 노력을 담은 취임고택자를 발간하는 등 영양군이 힘을 보탤다"면서, "앞으로도 영양군이 지원할 수 있는 최대의 지원할 것이니 이곳 주실마을이 반드시 기독교문화와 유교문화가 공존하는 관광상품지로 만들어 달라"고 특별 주문했다.

한편, 이제 경상북도는 이번에 발굴된 15건의 문화재처럼 선조가 물려준 문화유산을 갈고 닦아 나가도록 경상북도 도지사의 강력한 문화재 보존의지를 밑바탕으로 하여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역의 문화재를 깊이 보존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 대책을 추진 나가도록 경북도 문화재에 대한 믿음을 넘어 세계속에 널리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윤근수/기자



조영길 가옥 문화재 지정으로 지정서 받는 조석환 박사



문화재 지정



조영길 가옥 전경



문화재 지정자 단체사진

경북도, 2023 대한민국 헴프산업 공동 학술대회·K-HEMP EXPO 개최

대한간나비스연구학회, 한국의료용대마연구회 등 국내 헴프 전문가 참여

경북도는 11월 24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국내외 헴프 관련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내 헴프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3 대한민국 헴프산업 공동 학술대회·K-HEMP EXPO'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영숙 경북도 경제산업국장, 권기창 안동시장, 김형동 국회의원, 김세웅 대한간나비스연구학회장을 비롯해 행사를 공동주관한 헴프 관련 연구학회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의학, 약학, 한의학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 학회 회원과 국내외 헴프 연구의 선두에 있는 연구자가 참여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며 국내 산업화 및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세계 의료대마 현황 발표에서는 독일에서 의료대마의 절반 이상이 만성통증 치료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과 대마 성분의 만성통증(Cancer pain)을 포함한 만성통증 환자에 대한 해와 임상적 명확한 효과를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통증 치료 자체가 의료대마 사용증에 포함되지 않아 임상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 규제 동향 발표에서는 주별로 상이한 기호용·의료용 대마 규제 기준과 연방차원의 농업법 개정을 통한 헴프재배 합법화(2018), CBD 의약품의 FDA 승인(2018)과 마약류에서 제외한 처방전 의약품으로의 규제 완화(2020), 헴프 유래 CBD 성분의 식품 사용 합법화 법안 하원 제출(2023), 활발한 대마 연구 현황을 설명했다.

일본의 아키라 교수(준텐도 대학 우라야스 병원)는 자국 대마성분 의약품의 임상실험 진행 상황과 헴프 관련 법령 개정 추진 현황,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CBD 제품시장을 소개하고, 향후 대마 성분의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의학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전통 의학 저서에 언급된 대마의 줄기, 뿌리, 종자, 꽃, 잎을 활용한 풍병, 당뇨, 어혈, 건망, 탈모 등 다양한 질병의 처방을 소개했다.

그 밖에도 국내 대학에서 대마 품종연구와 대마성분 라이브러리 구축 현황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고 소아청소년과, 신

경외과, 마취통증의학, 재활의학 관점의 대마의 의료적 사용, 해외 규제 동향과 국내 대응 방안 등 헴프 관련 다양한 주제에 연구 성과가 공유됐다.

식약처는 올해 7월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인 규제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1965년 대마의 환각 성분인 THC의 최초 규명 이후 100가지 이상의 대마성분의 분리가 가능해지고 세계적으로 의료적 사용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국내 대마의 규제 또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헴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관계부처 설득을 위해서는 헴프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과학적인 통제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헴프 관련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 헴프 산업이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보탬이 되며 기업의 활발한 참여로 관련 산업이 조속히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꼭드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 O O 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길: 걷기, 산책, 등산, 힐링, 스트레스 해소, 기분 전환, 건강 증진, 자연의 아름다움 감상, 신선한 공기 마시기, 운동 효과, 스트레스 해소, 기분 전환, 건강 증진, 자연의 아름다움 감상, 신선한 공기 마시기, 운동 효과

빛: 햇빛, 자연광, 비타민 D 합성, 기분 개선, 스트레스 해소, 기분 전환, 건강 증진, 자연의 아름다움 감상, 신선한 공기 마시기, 운동 효과

음: 차, 커피, 음료, 식사, 간식, 디저트, 건강 증진, 기분 전환, 스트레스 해소, 기분 전환, 건강 증진, 자연의 아름다움 감상, 신선한 공기 마시기, 운동 효과

맛: 음식, 요리, 조리, 맛, 향, 기분 전환, 스트레스 해소, 기분 전환, 건강 증진, 자연의 아름다움 감상, 신선한 공기 마시기, 운동 효과

심: 마음, 정서, 감정, 기분, 스트레스 해소, 기분 전환, 건강 증진, 자연의 아름다움 감상, 신선한 공기 마시기, 운동 효과

수: 물, 음료, 차, 커피, 건강 증진, 기분 전환, 스트레스 해소, 기분 전환, 건강 증진, 자연의 아름다움 감상, 신선한 공기 마시기, 운동 효과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신비와도 남이로,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백공원, 축백수림, 외씨바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발해비보호수공원, 반딧불이전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영등포구 학생은 놀이 통해 과학 배운다... 과천과학관 체험 프로그램 진행

전문 해설가와 테마별 과학 전시관 관람, 놀이체험 통해 과학 흥미 유발

영등포구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과천과학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천과학관 체험 프로그램'은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6회에 걸쳐 중학교 810명의 학생들이 국립과천과학관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에는 초등학생 600여 명이 이미 다녀왔으며, 과학이 한층 친근해지는 시간이었으며 반응이 좋았다.

이번에는 4월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활동 시간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구는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의 과학과 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상상력을 자유롭게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과천과학관 체험 프로그램'은 크게 전시참여와 체험으로 나뉜다. 아이들은 과학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자연사관, 첨단기술관, 과학탐구관, 미래상상 공상과학(SF) 등 테마별 전시관을 관람하며 생명과 자연, 기초과학, 천문우주, 첨단기술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접한다. 또한 과학원리로 설계된 놀이시설(서서 도는 바퀴, 아치다리, 소용돌이 등), 게임(가상현실 스포츠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교과서뿐만 아니라 일상 속 다양한 과학을 발견하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를 그려본다.

그간 구는 과천과학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과천과학관의 과학원리 체험 콘텐츠 80종을 학교 수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과학원리를 체득하

도록 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인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향후 구는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해외 선진 과학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첨단 로봇, 항공우주 등 미래 유망 신기술 분야의 전문 강의로 마련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상상력과 과학 기술력이 곧 경쟁력인 시대, 국내 최대 규모 종합 과학관인 국립과천과학관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고 꿈과 재능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라며 "미래 주인공이 될 아이들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과학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과학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성북구, 공정무역 커피가 청소년 바리스타 체험에 쓰인대요

부산 수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및 실무자 참여



서울 성북구가 지난 22일 성북구 공정무역센터(동소문로22길 33-8)에서 부산시 수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들과 함께 공정무역 커피를 활용해 '청소년 바리스타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 교육은 삼성공정무역센터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17~19세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고 실천하는 '지구히어로' 동아리가 '지구 시민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를 찾았다.

지구시민교육은 공정무역, 기후변화, 빈곤, 전쟁과 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부산시 수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동아리 아이들과 실무자가 함께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하던 중 지자체 유일 공정무역 운동 기관인 성북구 공정무역센터를 알게 됐고, 청소년과 직접 체험을 통해 공정무역을 배우는 기회를 갖고자 체험 교육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성북구는 2016년 지자체 최초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를 개소하여 공정무역 선도 지자체로서 지역경제는 물론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저개발국 생산자들의 자립을 돕고 환경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정무역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구는 공정무역센터를 통해 매년 공정무역활동가들과 전문강사를 양성하며 공정무역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힘쓰고 있다.

김영규 공정무역센터장은 "찾아가는 공정무역 교육 신청뿐만 아니라 이처럼 공정무역센터로 '찾아오는' 교육 신청도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정무역 바리스타 교육을 마친 청소년들은 "책이나 교육을 통해서만 접했던 공정무역을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커피를 통해 더 친숙하게 알게 되는 기분이 됐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인권, 환경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을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윤리적 소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서울 서북권 유일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 개원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한 달간의 모의 운영 거쳐 12월 1일 문 열어

서대문구가 이달 30일 오후 2~3시 서울시 서북권 유일의 공공산후조리원인 '품애(愛)가득'(중가로 30길 45, 북가좌2동) 개원식을 개최한다.

개원식에는 주민과 서대문구 및 구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테이프 커팅과 시설 라운딩 등으로 진행된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한 서대문구는 지난달 말 준공 완료 후 한 달간의 마무리 점검과 모의 운영을 거쳐 개원식 다음 날인 12월 1일 문을 연다.

연면적 1351m²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인 이곳은 12개의 산모실과 2개의 신생아실, 사전관찰실, 모유수유실, 마사지실, 상담실, 교육실, 카페테리아 등을 갖추고 있으며 공개모집을 거친 (주)청솔트러스가 위탁 운영한다.

간호사 6명과 간호조무사 12명을 비롯해 행정, 조리, 피부관리 인력 등 총 30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최적의 환경과 최고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간호사가 분만 직후의 임신부와 출생 직후의 영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등 감염관리 측면에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철저한 감염관리 차원에서 산후조리원 입구에 에어샤워기가 설치돼 외부 유입 공기 중 유해 물질을 원천 차단한다.

산모실에는 TV, 냉장고, 호텔식 침구, 고사양 모션베드, 냉난방시스템이 개별 설치돼 있으며 좌욕기, 다리공기압마사지기, 공기청정기, 메델라 유축기 등을 각각 갖추고 있다.

전문 영양사는 산육기 회복을 위해 영양을 고려한 산모식과 간식(1일 3식 3간식)을 제공하고 주 1회 토요일 뷔페 특식도 제공한다.

전문마사지인력은 기본료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모유수유전문가는 유방울혈과 유선염 등을 수시로 관찰하면서 모유 수유를 격려하고 1:1 직접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수유를 위한 자제 교정도 해 준다.

간호사는 아기가 신생아실에 입소하



기 전 사전관찰실에서 24시간 관찰을 진행하고 감염성 질환 유무를 살핀다. 필요시에는 전문 기기를 활용해 황달을 측정한다.

소아과 전문의도 주 3회 회진하며 아기 상태를 살피고 상담을 진행한다.

신생아실에는 산모와 보호자가 아기 모습을 영상으로 항상 볼 수 있도록 1:1 베이비캠이 설치됐다.

또한 자외선소독기와 고압멸균소독기 등을 활용한 철저한 신생아 물품 소독으로 각종 감염성 세균으로부터 아기의 건강을 지킨다.

구는 산모교실, 육아상담, 산모 맞춤 운동교실, 산후 관리 및 육아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입소자 선정은 공정성을 위해 공개추첨으로 이뤄진다. 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분만예정일 3개월 전 1~10일에 예약을 받으며 그달 15일 공개 추첨을 진행한다. 추첨일이 공휴일일 경우 사전에 문자로 공개 추첨 일자와 장소를 안내한다.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신부 지원조례'에 따라 서대문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산모 등의 우선 입소자를 70%, 일반산모를 30% 비율로 배정해 공개 추첨한다.

우선 입소자 비율이 70%에 미달하면 일반 산모 비율을 확대하고 일반산모 추첨 이후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 서대문구민이 아닌 산모를 역시 추첨으로 선정한다. 추첨 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기간은 2주(13박 14일)며 기본 이용료는 250만 원이

다. 조례에 따라 우선 입소자는 50%, 서대문구 거주 1년 이상자는 20% 감면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공공산후조리원 4층에 설치된 '서대문구 모자건강센터'에서는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1:1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 내 '도닥도닥 심리상담실'에서는 난임부부와 양육자가 스트레스나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임상심리사가 1:1 또는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내 미혼모 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 임신부에게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용 희망자는 전화 (02-330-3807)로 예약하면 된다.

'맘 편한 영양상담실'에서는 영양사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건강 식단과 이유식, 영유아 발달단계별 영양 관리 등의 내용으로 이론과 실습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키즈쿠킹클래스를 연다.

모자건강센터에서는 이 밖에도 임신 전부터 임신 후까지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행복한 태교 교실 ▲순산을 위한 임신부 필라테스 ▲베이비 마사지 및 산후 체조 등 '모자건강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이성현 구청장은 "아이 낳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데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후조리서비스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사회의 책임인 만큼 관내 모든 산모 분들께 공적 산후조리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

해양치유1번지 치유리움 '완도'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세요

2023년 11월 24일

GRAND OPEN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산 명소 50선(춘천 오봉산)' 등반 인증

편리한 산행이 될 수 있게 26년까지 등산로 정비, 내년부터 등반인증 챌린지 시작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5일, 도청 직원들과 함께 최근 선정된 도내 등산 명소 50선 중 한 곳인 춘천 오봉산에 직접 올라 등반 인증을 했다.

등산 명소 50선은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 하나로 5개월간 산악인 김영미 씨 등 전문위원 8명이 선호도, 경관조건, 지역 연계성 등 심층 평가를 통해 최종 50선을 선정했다고 지난 7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등반한 오봉산은 춘천시 북산면과 화천군 간동면 사이에 있는 해발 779m의 지역 대표 명산으로 산 정상으로 올라서면 남으로는 소양호, 북으로는 파로호를 감상할 수 있어 산과 호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산행지이다.

도는 오봉산을 비롯해 이번에 선정된 등산 명소 50선에 대하여 지역의 대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해당 등산로를 관광객이 더욱 편리하게 탐방할 수 있게 집중 정비하고, 산의 이야기와 등반 코스를 담은 책자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더불어 강원관광재단과 협업하여 내년부터는 등산 명소 50선 등반 인증 챌린지 행사 등을 기획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오랜만에 등산이 쉽지 않았지만, 기암절벽과 노송이 어우러진 경관을 보며 오르다 보니 지루할 틈이 없었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등산 명소 50선은 제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산인만큼 저도 앞으로 등산 명소 50선을 차근차근 등반해 나갈 계획이니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동원/기자



충남도, '여성 고용 창출' 발전 3사와 힘 모은다

2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발전 3사와 업무협약 체결

충남도는 27일 도청 상황실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발전 3사와 '안전한 충남 및 여성 일자리 산업 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재해 예방에 채용되는 현장 안전감시자를 양질의 여성 일자리로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했다.

김태홍 지사와 손필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김호민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덕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상열 한국동서발전 부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협약식은 표창패·표창장 수여, 협약 내용 설명,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재해 예방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지원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협력한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충남형 산업 안전 및 여성 일자리 정착화 △산업 안전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 실습 지원 △산업 안전 분야에 도내 인재 채용 및 고용 안착 지원 △현장 안전감시자의 근로 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 △지역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양질의 일자리 지원 등이다.

도는 제도 마련 등 전반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며, 대전고용노동청은 인력 양성 및 산업재해 예방 부분의 행정 지원과 고용 안정에 집중한다.

발전 3사는 산업 안전 관련 도내 여성 인력 채용 및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확산을 추진한다.

초기 목표는 연간 인력 양성 교육 1000명 및 채용 500명 이상이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산업재해는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를 주고 기업과 지역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라면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사항을 최소화하고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현장 안전감시자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도는 지난해부터 현장 안전감시자 전문교육을 통해 여성 인력 양성과 발전소 현장 고용을 연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 수료생 연 1000명 배출, 현장 채용 연 500명 달성을 위해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발전 3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선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환경 개선 등에 공헌한 기관·개인에 표창패 및 표창장 총 8점을 수여했다.

기관 표창패는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보령발전본부, 태안발전본부, 보령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개인 표창은 정철희 보령발전본부 소장, 김재만 보령발전본부 팀장, 송동성 태안발전본부 차장, 김미정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과장이 각각 받았다.

최정근/기자

충청북도도는 24일 증평 벨포레에서 2023년 도민감사관 워크숍을 열어 도민감사관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고 역량 강화 방안 등 최신 정보를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10기 도민감사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감사관 제도 안내와 활동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청렴인권경영연구소 김효광 대표의 '도민감사관의 역할과 반부패 법령'이란 주제로 진행된 청렴 특강을 들었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은 내년도 감사 일정을 공유하고 도민감사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도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민감사관은 도정의 감시자 역할과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도민들이 도정을 신뢰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민감사관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청렴한 충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해 주

충북도, 제10기 신규 도민감사관 워크숍 개최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및 소통의 장 마련

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에서 운영 중인 도민감사관은 도 주관 감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사항 및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제보하는 등 내부통제의 한계를 보완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지난 8월 위촉한 제10기 도민감사관 40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도민감사관 자격은 변호사, 건축사 등 자격을 갖춘 자나 공공기관 감사 분야 근무경력, 또는 사회적 신뢰가 높고 감사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도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고정화/기자



원주시 소금산 울렁다리, 국제교량구조공학회(IABSE) 우수구조물상 수상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교량구조공학회(IABS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Bridge and Structural Engineering) 심의 결과, 원주시 소금산 그랜드밸리에 있는 소금산 울렁다리(404 Skybridge)가 'Pedestrian and Cycle Bridges' 부문 우수구조물로 선정됐다.

국제교량구조공학회는 교량 및 구조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교량 학회로, 전 세계 100여 개국 약 4,5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교량구조공학회는 전 세계 각국의 우수구조물에 대해 총 7개 부문별로 나눠 공모를 진행한다.

한국을 대표해 응모한 원주시 '소금산 울렁다리'는 2023년 'Pedestrian and Cycle Bridges' 부문에 참여해 영국, 중국, 캐나다, 뉴질랜드, 헝가리와 함께 최종 후보작으로 선정됐다.

이어, 지난 11월 9일 IABSE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취리히에서 각국 후보자들과 학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3개국 1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산화 관광과장은 "소금산 울렁다리가 세계적인 우수 구조물로 인정받음으로써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이를 토대로 다른 관광자원 사업과 연계하여

'천만 관광객 시대'를 가까운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김정환/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문체 부흥"으로 제2의 탁구 부흥 기대"

26일, '제21회 협회장기 탁구대회' 개최... 아산시민체육관서 200여 명 열린 경향 '상황'

아산시가 후원하고, 아산시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제21회 아산시 협회장기 탁구대회'가 26일 아산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탁구대회는 동호인들의 탁구 운동을 장려하고 상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해 탁구 종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남자·여자 단체전 2개부, 남자·여자 개인전 3개부, 라지블 2개부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개최식에는 박경귀 아산시장,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이명수 국회의원, 임도훈 아산시체육회장을 비롯해 선수단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경귀 시장은 축사를 통해 "운동경기가 21회를 이어오는 건 어려운 일이다. 탁구 동호인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아산시는 '아트밸리 아산'으로 브랜드를 바꾼 뒤 '문체 부흥'을 추진하고 있다. 탁구 역시 제2의 부흥을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무쪼록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대회가 끝나면 현충사, 신정호, 온천 등을 방문하면 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원호/기자



태백시, 최초 청년공간 '태백 청년센터' 준공식 개최

태백시는 24일 청년들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청년문화 공간으로 조성된 '태백 청년센터'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태백 청년센터 건립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장성동 210-32일대에 총사업비 14억(도비 10억, 시비 4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추진했다.

준공식에는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김명선 행정부지사, 태백시의회 고재창 의장 등 주요 내빈과 청년협의체, 청년단체와 시민이 참석했으며, 축사, 테이프 커팅, 청년 씨앗 심

기 순으로 진행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청년센터 건립으로 태백 최초 청년공간이 마련됐으며, 이 공간을 통하여 지역 내외의 다양한 청년들이 교류하며 지역탐색, 일거리 실패, 관계 맺기 등을 통해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욕구를 충족하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태백시는 청년센터는 2024년 상반기에 개소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 복합공간을 연계 조성하는 등 청년정책을 더욱 확대, 청년문화 조성 및 지역 청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유성근/기자



춘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예고...21일까지 이의신청

북산면 내평리 산50임 외 14필지 등 산사태 및 토석류에 따른 피해 우려 지역

춘천시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적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 및 점검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위험지역으로 판단될 경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한다.

예정지는 북산면 내평리 산50임 외 14필지로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이다.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사방사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하며,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사방사업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경상남도, 세계 화상 거대 자본 경남으로 끌어들이다

‘한·세계화상비즈니스워크’ 참가...경상남도 투자유치 홍보부스 운영

경남투자경제진흥원(대표 오재호)은 22일부터 25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와 창원시 일원에서 개최된 2023 한·세계화상비즈니스워크에 참가해, 세계 화상들의 거대 자본을 경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전방위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경상남도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 설립된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이번 세계화상대회에서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해안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홍보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경남도 투자유치단과 함께, 경상남도 투자유치 홍보부스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현장에서 경남에 관심이 있는 화상들을 대상으로 현장 투자유치 상담을 진행했다.

22일 열린 프로젝트 설명회에서는 막강한 자본력을 지닌 화상들에게 경상남도의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친해의 자연을 간직한 남해안을 집중적으로 홍보

했다.

25일에는 20여 명의 화상을 대상으로 남해안 일대와 주요 관광사업 예정지를 둘러보는 투자유치 팸투어를 진행하며, 남해안 관광 투자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팸투어는 남해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독일마을을 시작으로 경남 관광분야 주요 기업인 아나티 남해를 비롯하여 두곡지구 관광단지 예정지와 대명소노브레이크힐스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남해안의 잘 갖춰진 관광 기반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화상들은 남해안 관광 투자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오재호 원장은 “이번 세계화상대회를 시작으로 막강한 자본력을 지닌 화상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경남 남해안에 화교 자본을 유치하여 제주신화월드와 같은 성공사례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재현/기자



울주군, 행안부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

울산시 울주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사업은 지역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는 기업 지원시설 투자사업 등을 발굴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기업 유치 노력이 우수하고, 비즈니스센터, 다목적 복합센터, 창업지원 및 R&D센터 등 기업 지원시설 선도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한다.

울주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온산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울주군 온산을 덕신리에 다목적 복합센터(가칭 ‘울주군

로자복지회관’) 건립 계획을 제출해 선정됐다.

센터는 4천98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6천938㎡ 건축연면적 규모로 지어진다. 온산국가산업단지 인근 부지에 기업홍보관·세미나실·안전체험관 등 다목적 복합시설을 조성해 지역 산업 활성화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울주군 근로자복지회관이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온산국가산업단지의 기업과 근로자의 거점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진/기자



천영기 통영시장, 2024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

2024년도 예산안 8,041억 원, 올해 대비 160억 원, 2.03% 증가

천영기 통영시장은 지난 11월 24일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서 시정 연설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시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통영시는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발로 뛰 결과 총 40여건 830여억 원 규모의 다양한 공모에 선정되면서 목표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각종 평가에서도 많은 성과를 쌓았으며, 특히 다가오는 12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3회 어린이 안전대상에서 전국에서 제일 어린이들이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각종 대형 사업들도 잘 마무리했다. 가오치항, 연화-산등항 등 3개소 어촌뉴딜 300사업 및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완료됐으며, 국내 최초로 한산면 용호도 폐교에 공공형 고양이보호·분양센터도 개소했다.

통영의 중추산업인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그 어느 해 보다 많은 투자를 했다. 산양을 영운항에서 열린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 내외가 참석했고, 6년 만에 진행된 미FDA 지정해역 위생 점검은 역대 최고의 평가를 받았으며, 국내외 다양한 수산물 판촉활동도 쉬지 않고 이어갔다.

통영의 저력을 보여준 대규모 행사들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던 춘계 대학축구 연맹전, 극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제62회 경남도민체전, 한산대첩축제 등 그 어느 해 보다 다양한 도전의 무대였고, 지난 10월 미국 텍사스주 맥알렌에서 열린 제66회 세계 축제협회 연차 총회에서 통영이 “2023년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된 것은 이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시민을 섬기는 발 빠른 위민행정으로 시민들의 얼굴도 한층 밝아졌다.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에 대한 난방비 및 냉방비 긴급 지원, 전국최초로 시행한 어린이 상해보험제도 및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은 지금도 전국 지자체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날, 천영기 시장은 2024년 시정방향은 “함께 뛰는 미래, 도약하는 통영”으로 정했으며, 내년도 시정을 힘차게 견인할 5대 분야 역점시책들도 하나하나 설명했다.

첫째, 미래지향 스마트한 도시인프라 구축

먼저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대비하는 KTX 통영역세권 개발 및 배후도시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한산대첩교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

를 구축한다.

강구안브릿지와 남양산 디피랑을 연결하는 디피랑 연결보도교는 내년 하반기 준공하고, 산양 송도~학림 보도교와 도산연도~음도 연륙보도교는 내년 공사착공 후 본격 추진한다.

경제기반형인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연내에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이행하고, 도천지구는 세대공감 한울타리 및 음악마을 아트홀을 조성하며, 태평지구는 주민거점공간 준공을 마지막으로 최종 마무리, 정량지구와 용호지구 사업도 완료하게 된다.

당동 및 통제영지구, 적촌-도산마을, 노전-선창마을 도시재생은 각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간다.

둘째,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도시 구현

야간관광 특화도시사업은 3차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강구안 일대를 세계적 야간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고, 달야공원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사업은 내년 연말 준공, 미수동과 도천동을 연결하는 오션뷰케이션 조성은 내년 상반기 시설시공을 발주할 계획이며, 강구안 경관개선사업도 시설시공을 거쳐 내년 하반기 본격 착공한다.

육지도 주민들의 숙원인 육지도노레일 재개장은 소송 종료로 내년 법원의 현장감정이 끝나면 레일 철거 및 실시설계와 공사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며, 안정 등 관내 2개소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각종 스포츠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대규모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안심 농수산물 생산 및 판로 개척

도산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임대형 수산물 가공공장 신축 및 입주업체 선정은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며, 통영수산물 국내외 소비 촉진활동은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 실질적인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추진한다.

이상수은, 적조 등 자연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굴껍데기 자원화시설은 내년 상반기 준공 및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와 다름없이 미FDA 지정해역 위생 관리도 꼼꼼하게 챙겨 나간다.

육지 도동항 등 4개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마스트플랜 등을 수립하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인 연명고 선촌권역, 건유, 하양지마을도 계획한 목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산양을 달아항 등 8개소 어촌뉴딜300사업과 명정동일원 해양자원순환센터는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농업

인들의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한 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과 미래농업인 육성 및 역량강화를 적극 추진하며, 기능성 유휴밭 시범 생산도 추진한다.

넷째, 관심과 나눔 실천, 모두가 행복한 안전녹색도시 조성

자연재해의 선제적 대비와 중대재해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영 뒀는숲과 목재문화체험장을 용남면 장문리 일원에 조성하며, 봉평동일원에 디지털타운과 육지면일원 스마트빌리지도 조성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규모를 확대해서 시행하고, 공설불안장 증축은 내년 연말 마무리하며, 찾아가는 섬지역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분만산부인과 지원으로 출산친화환경 조성 및 치매예방과 치매인식 개선사업도 지속 발굴 추진한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통영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시민들의 친환경적 생활방식 실천을 위해 환경교육을 더욱 확대하며, 내년 상반기 수소소통복합기지 상업운전 개시와 함께 23대 정도의 전기 및 수소 저상버스를 대중교통에 도입하게 된다.

다섯째, 시민만족, 한발 앞선 적극행정 실현

먼저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공공자원의 시민 개방을 더욱 확대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한층 활성화한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청년이 행복한 문화를 적극 육성하면서,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및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대학생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3학년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 정부의 역대급 세수 부족사태에도 불구하고 통영시는 그동안 불필요한 투자억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온 결과, 2024년 당초예산에 올해대비 160억 원, 2.03%가 증액된 8,041억 원을 편성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73억 원, 2.29%가 증가된 7,72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16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99억 원으로, 전체 13억 원, 3.88%가 감소된 315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4년은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국제감면 등의 영향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며, 시정목표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한 결과, 국·도비 예산은 금년대비 4.45% 152억 원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 내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합리적, 효율적 배분으로 민선8기의 목표인 미래 100년의 도시통영 건설에 차근차근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한편, 천영기 시장은 이날 연설에서 “내년에도 통영시의회와 함께 지혜를 한데 모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현명한 낙관론자가 되겠으며, 2024년 통영은, 그 어느 해 보다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그 포부를 밝혔다.

이유준/기자

상주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For more success with SANGJU

더 큰 성공을 위한 선택

경북교육청, 경상북도교육장학회 장학금 수혜자 대폭 확대

2023년도 제2회 경상북도교육장학회 이사회 개최

재단법인 경상북도교육장학회는 27일 경북교육청 화백관에서 '2023년도 제2회 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장학회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장학회는 올해에만 선형 학생과 우수 실적 학생, 6·25 전쟁·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후손 학생 등 총 55명의 학생에게 3,4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연말까지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학교 학생과 대학 진학이 예정된 고3 학생, 2023년 경북교육을 빛낸 학생 등 총 155명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임종식 이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많이 내주셔서,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교육지원청 의성도서관, 수고한 고3 마음껏 즐겨라

의성고, 의성여고 학생 대상 1일 도서관 나들이 운영

의성교육지원청 의성도서관은 11월 24일 의성고등학교 3학년 50여명을 대상으로 1일 도서관 나들이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도서관 자료실 견학, 아로마 오일을 활용한 나만의 향수 만들기, 중국과 베트남 다문화 체험 및 다문화 도서 전시 등 수험생활에 지쳐 있던 학생들이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입시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의성고 관계자는 "지금도 입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오랜만에 도서관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소설이나 여행, 운동, 요리 등 관심 분야의 책을 볼 수 있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의성도서관은 29일에도 의성여고 3

학년 50여명을 대상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종화 관장은 "수능을 준비하느라 지끈거릴 정도로 달려온 수험생들에게 심과 힐링이 있는 시간이 됐길 바라고, 앞으로도 도서관이 인생 여정에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경북교육청, 업무 효율과 경감을 위해 발 벗고 나서다!

업무경감을 위한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제작·배포



경북교육청은 교육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은 교직원이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수동 반복적인 업무를 간단한 입력만으로 자동화 처리되어 시간을 절약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등

업무경감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올해 상반기 교직원으로부터 제안받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6건이다.

11월에 제작·배포하는 프로그램은 △계약 업무(용역, 공사, 물품) 서식 자동화 프로그램 △자동 수합 프로그램 △교원 수업 결석보강 지원 프로그램(중등) △온라인 쇼핑물 구매 예정 품목 자동 목록화 시스템 등 총 4건이다.

특히 계약 업무(용역, 공사, 물품) 서식 자동화 프로그램과 자동 수합 프로그램은 교감, 행정실장, 주무관, 교원으로 구성된 TF팀에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오는 12월에는 △교원 시험감독 배정프로그램 △수련 활동 신청학교

자동 배정프로그램 2건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제작된 자동화 프로그램은 경북교육청 학교지원종합자료실 누리집에 탑재된다.

경북교육청은 내년에도 지속해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며 기존 개발된 프로그램도 개선과 불편 사항을 수렴하여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현광 정책혁신과장은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 외에도 디지털 전환 사업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교직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노력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학교 현장 빈대 예방에 총력 지난 8일부터 실시해 온 점검 및 예방 홍보 강화

지난 20일 부산에서도 빈대가 발견됨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이 각급학교에 빈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하윤수 교육감이 27일 오전 8시 50분 기숙사를 운영하는 동래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빈대 발생 우려 지역 점검하고, 빈대 예방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빈대 확산 방지에 박차를 가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 빈대 예방 대책반 구성, 점검 강화, 방제 지원 등 빈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7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8일 각급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빈대를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빈대정보집'을 배부하고, 빈대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학교 시설에 대한 소독·방역 주기를 단축하고, 빈대 서식 우려가 있는 침구류 등을 세탁·소독하도록 지도했다.

시교육청·각급학교 홈페이지, 다모아 앱을 통해 빈대 예방 카드뉴스를 게시했고, 질병관리청의 최신판 빈대정보집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 빈대 예방 관련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부산교육청은 지난 20일 사하구가정집에서 빈대가 발견되자마자 신속하게 보건 담당자, 장학사들로 합동 점검반을 꾸려 모든 기숙사 운영학교의 빈대 예방 및 관리 상황 점검을 마쳤다.

지난 24일 오전에는 시교육청 부시장 등 간부 공무원, 교육지원청·직속기관·공공도서관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빈대 예방 관련 긴급 대책회의도 개최했다.

윤근수/기자

이 자리에서 학교·기관의 빈대 예방을 위한 점검 사항과 빈대 방제 지원 등 방안을 마련했다.

빈대 예방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빈대 예방 및 관리 대책반'을 꾸리고, 기숙사 운영학교뿐만 아니라 각급학교 보건실, 돌봄교실, 숙직실, 통학차량 등에 대한 점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부산에서 빈대가 발견되기 전부터 빈대 예방을 위해 힘써 왔다"며 "앞으로는 지금보다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지원도 확대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송광삼/기자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으로 견인하는 지역발전

'2023 영양교육지도자 대토론회' 개최

영양교육지원청은 11월 21일 '2023년 영양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가족 대토론회'에 이어 11월27일에 영양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지도자 대토론회를 영양교육지원청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교육지도자 대토론회에는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과장, 관내 초·중·고 교장이 참여했으며, 지난 21일 개최된 교육가족 대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책, 학교 교육의 변화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토론회는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영희 교육지원과장의 '경북미래교육지구 및 2024년 영양미래교육지구 학교 적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그리고 21일 개최된 교육가족 대토론회에서 나온 분야별 의견들을 함께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지도자들의 역할과 지역사회와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됐다.

앞으로 대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여 영양군청과 영양군인재육성 장학회에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며,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2024년 교육

계획수립에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영양교육지원청 김영희 교육장은 "교육가족 대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하여 관내 교육지도자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2024년 해달외 영양교육에 반영하여 영양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로 인해 교육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달성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역량강화 연수 실시

대구달성교육지원청은 11월 22일, 23일 양일간 달성 관내 초등돌봄전담사 57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초등돌봄전담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의 초등돌봄교실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학생들과의 소통·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돌봄전담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 날 연수에는 심후섭 아동문학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어린이를 위한 소통·공감의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돌봄전담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지도 방법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제시하여 돌봄전담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현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사회적으로 학교 돌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이번 연수가 돌봄전담사들이 학생들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폭설에 대비한 도로제설 본격 가동

24일 제설대책 추진보고회...15일부터 4개월간 제설대책기간 돌입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24일 가와지대강당에서 정윤식 일산서구청장 주재로 구청, 각 행정복지센터, 트랙터 제설 봉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2024년 일산서구 도로제설대책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겨울철 폭설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보고회에선 제설 사전대비 현황, 구청 및 각 동의 제설업무 분담, 강설 시 행동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고, 각 동 제설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구청은 자유로 및 제2자유로 램프구간과 이면도로를 5톤, 1톤 제설차량으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관내 육교(22개소)는 구청 각 부서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보도와 버스정류소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속히 인

력을 투입하여 집중 관리한다.

또한, 24시간 상황근무 및 3단계(주의-경계-심각)로 구분한 비상근무계획을 마련하고 기상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구는 연화칼슘·친환경제설제 950톤, 제설함 140개소, 제설차량·제설살포기 24대 등을 사전점검 및 수리하고, 민간 제설장비 임차운역을 체결했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민선8기 시정 목표인 생활 안전을 위한 철저한 제설대책 수립과 신속한 제설 작업을 통해 안전한 일산서구를 만들겠다"라며 "시민들께서도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영기/기자



합천군,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작업안전 교육 실시

합천군은 지난 24일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상남도 주관으로 실시됐으며 군 직영 밀폐공간 담당자,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상하수도 시설물 보수 대행업체 등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한 작업절차,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밀폐공간 작업 전 특별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경기도 성남과 충북 오송 등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 공

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등 시설별 예방관리를 통한 안전 확보 방안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교육은 관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근절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작업 전 반드시 작업절차를 준수해 생명 보호와 사고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최광용/기자



서울 자치경찰위, 치안 최전방 자치경찰 마음건강 돌본다

정신건강전문가가 현장 근무지로 찾아가 심리상태, 스트레스 점검

#1. "이제 무더질 법도 한데 번사체와 유가족을 볼 때마다 감정이 먹먹하고 우울해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열심히 운동하면서 체력을 단련해야겠다고 생각한다." (한강경찰대 A경감)

#2. "익사로 부패하면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몸을 구석구석 씻어도 한동안 빠지지 않는다. 꿈에 번사체가 나올 정도로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린 적이 있다." (한강경찰대 B경위)

#3. "군에서 복무할 때 깊은 물 속에 자주 들어가는 훈련을 받아서 물이 두렵지 않았는데 한강은 달랐다. 수심에서 시야가 30cm밖에 보이지 않아 손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수색하다 보니 낯빛바늘이나 날카로운 철 조각에 다치는 경우가 잦다. 그래도 사명감으로 견디고 있다." (한강경찰대 C경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치안 일선에서 돌발적인 위기상황 대응과 잦은 대민업무 등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자치경찰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해 11월 28일, 12월 14일에 '찾아가는 마음건강 점검'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4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한강경찰대 간담회'를 열고 한강 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 대원과 자원봉사자 등을 격려하고 시민과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 장비 교체, 복지 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마음동행센터에서 경찰 대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은 경찰병원, 보라매병원 2곳으로 접근성이 낮고 비상시 즉시 출동과 교대근무로 제때 심리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찾아가는 마음건강 점검'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정신건강전문가가 현장 근무지로 찾아가 심리상태 점검, 스트레스 점검 등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

를 지원한다.

검진에 필요한 의뢰기기가 설치된 '마음안심버스'를 시범운영하여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심리상태를 정신건강전문가가 검진하고 마음 건강 평가 및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시범운영 대상은 위험한 구조활동과 번사체 인양 등으로 정신적 트라우마에 노출되기 쉬운 한강경찰대 대원 약 40명으로 자발적 희망자를 선정하여 진행된다.

한강경찰대는 대장 1명과 행정팀 2명, 수상안전요원 36명 등 총 3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에는 총 3,647건으로 하루 평균 10번의 수색활동을 했으며, 44명의 시민을 구조하고 112구의 번사체를 인양했다.

대원들은 투신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수색 과정에 물속에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번사체를 인양하는 경우 정신적 고통으로 심리상담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서울 자경찰위는 찾아가는 마음건강검진을 시범 운영한 후에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2024년도에는 지하철 경찰대, 서울경찰청, 경찰서 자치경찰부서 경찰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장은 "민생치안 현장에서 고생하는 자치경찰의 심리상담·치료 등으로 복지가 개선되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자치경찰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경상북도의회 GYEONGSANGBUK-DO COUNCIL

매서운 추위에 성동형 스마트쉼터 53곳 운영... 안전과 한파쉼터로 역할 톡톡

스마트쉼터 4곳 추가 설치로 성동구 전역에 총 53곳 운영하여 대설경보 시 24시간 '활짝'



서울 성동구는 올해 성동형 스마트쉼터를 4곳을 추가 설치하여 구 전역에서 총 53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아침 출근길, 뚝 떨어진 기온이지만 성동구 버스정류장에는 스마트쉼터가 있어 주민들의 발걸음이 가볍다. 성동형 스마트쉼터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20년 8월 처음 설치된 미래형 버스정류장으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 또 도로 위 미세먼지와 매연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위급상황 시에도 안전을 지켜준다. 스마트쉼터의 주요기능은 냉난방과 공기정화, 버스

도착정보 안내와 와이파이는 물론 내부 CCTV 실시간 관제, 휴대폰 무선충전 등이 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스마트쉼터 이용자 수는 51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약 28만 명의 성동구민이 모두 18회 이상 스마트쉼터를 방문한 셈이며, 같은 기간 관내 구립도서관 7곳 총 이용자의 1.4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구는 올해 상반기 스마트쉼터 3곳을 설치한 데 이어 지난 11월 중순 독섬역에 1곳을 추가 설치해 총 53곳의 스마트쉼터를 운영한다. 스마트쉼터에는 비

상벨이 설치되어 있고 실시간 CCTV관제가 이루어져 주민 안전공간 역할도 한다.

쉼터 내에서 긴급한 순간들을 관제실 직원의 빛나는 대처로 슬기롭게 넘겼다. 지난 4월 밤 11시에 쉼터 내에서 데이터폭력 발생하여 관제하던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여성을 구한 적이 있었다. 또 같은 달 쉼터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여 관제실 직원과 쉼터에 있던 구민이 응급환자를 구한 일도 있다.

올해는 청각 약자의 청취력 향상을 돕을 주는 '허어링 루프(Hearing Loop)' 47대와 자동심장충격기 12대를 설치했다. 스마트포용도시라는 성동구 슬로건에 걸맞게 교통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안전 기능까지 담았다.

이러한 성동형 스마트쉼터는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세르비아, 일본 도쿄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직접 찾아와 성동구만의 노하우를 배우고 있다.

구는 본격적인 겨울을 대비해 전체 쉼터에 대해 전수 점검하고, 정기적인 청소를 통해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 기존 새벽 4시에서 밤 12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대설경보 시에는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형 스마트쉼터는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안전과 쉼터로의 역할을 정확히 해내고 있다"라며 "본격적인 한파에도 스마트쉼터를 차질없이 운영할 것이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성원/기자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도민이 행복한 희망 경북! 경상북도의회가 만들어 갑니다.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을진

대한민국의 **꿈**, 울진

2023

죽변항

수산물 축제

가자, 죽변! 먹자, 수산물!

2023. 12. 15(금) ~ 17(일)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일원

주최 |  울진군

주관 |  울진군 축제 발전위원회

후원 |  한수원(주) 한울원자력본부  울진죽변수협

 초대가수

